

# 대전세종포럼

일류 경제도시, 미래 전략 수도를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

DAEJEON SEJONG KNOWLEDGE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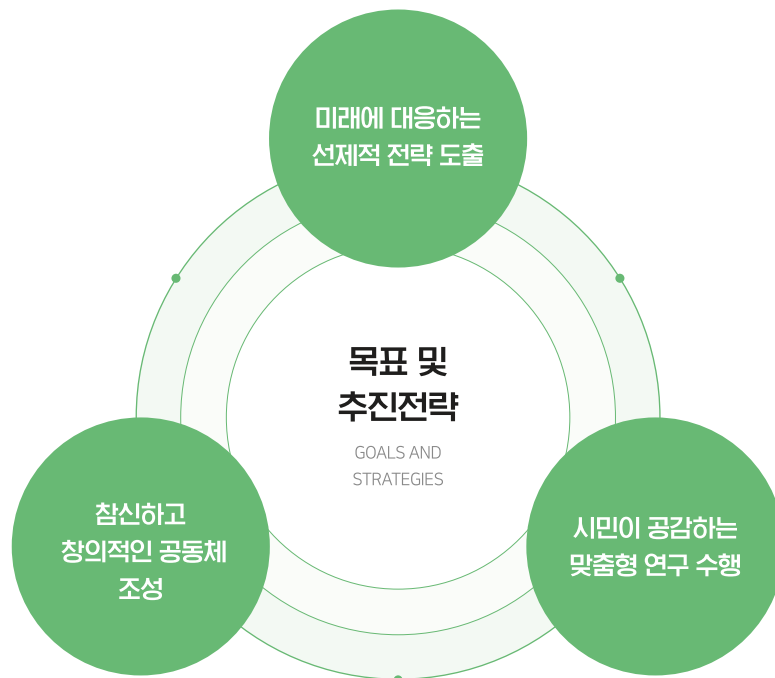
### MISSION

시민 행복과 공지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도시 실현

### VISION

일류 경제도시, 미래 전략 수도를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연구
-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의 싱크탱크
- 수요맞춤형 연구 개발



-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
- 소통으로 신뢰하는 조직문화 확산
-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터 창조

- 시민 참여형 정책 네트워크 구축
- 대전 세종 상생 발전 로드맵 제시
- 최종 고객인 시민과 쌍방향 소통



DAEJEON SEJONG FORUM

# 대전세종포럼

2023 봄 통권 제84호

# Contents

대전세종포럼 / 2023 봄 통권 제8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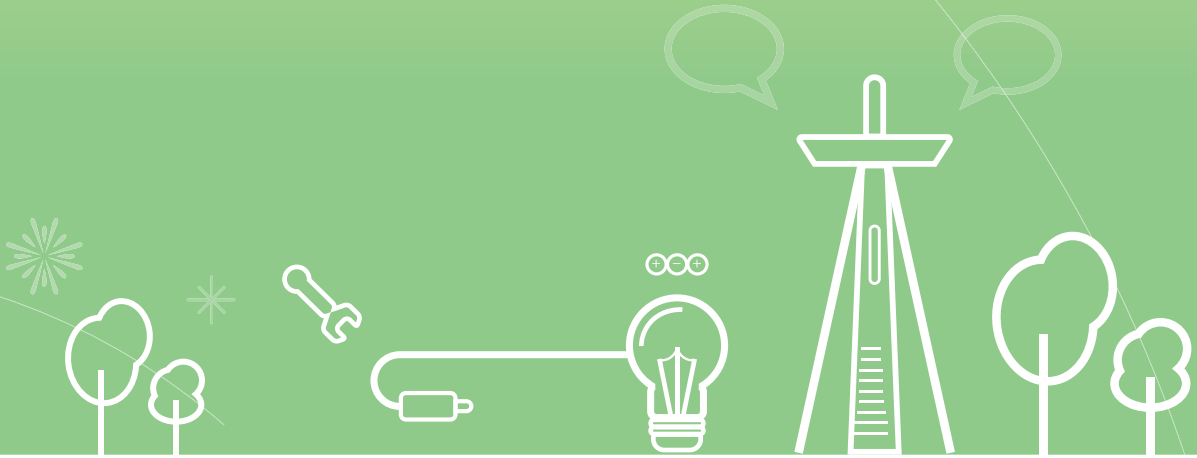
권두언

- 06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애향심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세종  
연구  
특집

기획특집

- 10 지역학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들  
박승희 영남대학교 교수
- 18 '지역'과 '지역학' 네트워크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30 호명과 경관으로 바라본 대전의 지역정체성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장
- 40 장소성과 장소감을 통한 세종의 정체성 찾기  
임동욱 미디어이터스 대표



정담 | 情談

- ISSUE & TALK
- 54 **우리의 지역을 탐구하는 이유**  
조혜진 독립연구자
  - 64 **청년이 생각하는 대전세종의 지역정체성**  
김샤론 독립연구자
  - 72 **삶과 장소, 문화와 미래를 연구하는 지역학**  
임서연 독립연구자

대전·세종 STORY

- 76 **오리백숙 '전동가든' 속삭이듯 추천해 주고 싶은 맛집**  
장석춘 문화활동가/시인
- 78 **유성시장을 지키는 노포, 향미원**  
최원석 인문학협동조합 그리고 이사

대전·세종 FOCUS IN

- 80 **사색하기 좋은 도심 속 작은 정원 테마오래**  
김한솔 로컬42협동조합 이사장
- 84 **조치원역 광장에 부는 바람**  
최광 소설가

연구원 | 研者

- DSI NEWS
- 88 **연구원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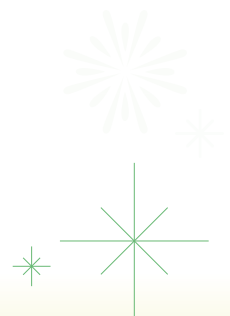
권 두 언

#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애항심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김영진 / 대전세종연구원장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정 이상의 경제 규모를 이룰 인구가 재생산되지 못하는 사회는 장기적인 재정의 악순환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사회안전망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여했지만 출생아수는 20년 전의 반토막 수준인 25만 명으로 곤두박질쳤고 합계출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서 회원국 평균의 절반을 면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합계보다 많아져서 지나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지방생활 공간 개편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연합 추진단이 출범했는데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의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 시티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점차 국가 중심에서 자율성과 고유성을 갖는 지역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잡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인프라를 좋게 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인프라만 좋아진다고 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자 하면 보이고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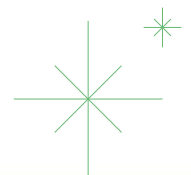
# DAEJEON SEJONG

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네의 유래나 현재의 모습,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상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긍심과 애郷심을 갖게 되고, 행복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때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3년 전부터 대전세종학연구센터를 설립해 대전과 세종의 뿌리 찾기와 함께 미래상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해 온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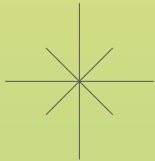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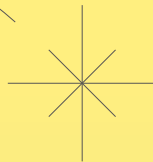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의 효과를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로 적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세종포럼은 “지역정체성”이란 주제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질은 어느 국가에 사는가보다 어떤 도시에 사는가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해가는 성공적인 결과물의 집합체로 우리 도시, 우리 지역이 재발견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하고자 합니다. 봄이 오는 만큼 다시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EJEON SEJONG FORUM



논담(論談)

## 대전·세종의 지역정체성을 묻다

기획특집

/ 박승희  
영남대학교 교수

/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장

/ 임동욱  
미디어에이터스 대표

기 획 특 집 0 1

# 지역학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들

박승희 / 영남대학교 교수

## I — 지역이란 장소성

지역학의 개념과 기능,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역적 다층성과 학문적 복잡, 시대적 가변이 지역학 내외부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 지역학의 기본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학의 정립과 성찰적 이해를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관련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자.

먼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란 철학적 질문에서 출발해 보자. 이 질문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장소에 존재한다는 철학적 명제에서 출발한다.<sup>1)</sup> 우리는 종속된 장소 안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 결국 장소는 우리 자신이 된다는 의미이다.<sup>2)</sup>

문제는 장소로부터 인간이 분리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술복제-경제패권 시대와 세계화의 허위적 구상 과정에 인간이 장소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반성적 성찰을 요구한다. 인간과 무관하거나 삶과 거리가 있는 현재의 철학과 과학은 그 반증이다. 기술-경제가 지배하는 시대에 철학과 과학은 인간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는 방법적 기획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그 기획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철학과 과학은 각자가 존재하는 곳, 삶의 장소에 대한 사고의 촉각을 집중해야 한다. 잊혀진 ‘인간’을 삶의 본래 자리로 회복하는, ‘세계-내-존재(Being in the world)’를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해야 한다. 즉, 우리 시대의 철학은 시대와 장소 위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 장소가 없는 철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출발한 원시·근본불교가 치열한 자기 응시와 직관을 중시하는 한국의 선불교 염불 수행법을 위주로 하는 일본의 정토 불교, 자비와 이타행(利他行)을 강조하는 티벳 불교와 다른 것도 바로 그것이 탄생한 ‘장소’의 영향 때문이다.<sup>3)</sup> 다른 장소(지

1) E. S. Casey, "Getting Back Into Place"

2) Derrida, cited by B. Janz, In "philosophy as if place mattered"

3) 박치원, '철학의 장소화 하기', 영남대학교 인문교육학술원 발표 자료, 2022.



역, 국가)에서 '다른 철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전 지구적으로 횡행하는 지정학적 차별과 반인간적 보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3세계의 지역-로컬 철학이 그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유럽의 보편주의는 그들을 절대화함으로써 타자 및 '다르게 세계를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의 지역-로컬 철학(서부·유럽 철학)이 철학 자체를 획일화, 단순화 시킴으로 다른 지역-로컬 철학의 등장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관한 종합 연구, 즉 글로벌(Global) 스터디(Studies)로서의 철학은 지금까지 제1세계 지배학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제1세계 지배학은 자신의 국가를 중심으로 바깥 세계를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지배력을 존속시킬 것 인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3세계가 중심이 된 공존학은 지역-로컬의 기반(underlying studies of locals)의 새로운 철학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1세계와 비자발적, 강압적으로 묶인 학문적 식민성의 매듭을 푸는 주체는 제3세계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3세계 공존학은 의미 있는 지성적 흐름이다. 과거의 국가 간 교류와 타자 간 합의 등, 단일 국가 중심의 연구로부터 글로벌과 로컬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슈별 협력과 공동 연구로의 전환 또한 철학적 지평의 전환적 지점이다. 제3세계에서 발흥된 공존학은 제1세계의 세계 지배학에 대한 정확한 분석-비판-극복을 목표로 한다. 모든 관점을 초월하는 방식(God's eye-view knowledge)에서 모든 관점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탑-다운의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새로운 연구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세계지배학 내에 결여돼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에 대해 새로운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 제1세계 내에 결여된 제3세계의 지식/철학을 변증법적으로 융합시키는 작업이 관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탈식민적 연구자들, 제3세계주의자들에 의해 지방화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새로운 지식으로 등장한 제3세계의 지식을 수용하고 결합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지구학으로서의 제3세계 공존학, 즉 지역-로컬 철학은 국가 내 지역학에도 그 철학적 흐름을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다. 제3세계가 중심이 된 공존학의 구성은 일종의 권리 회복의 문제이다. 장소의 현상학을 구성하여 실존의 장소가 저기 있는 추상적 세계(world-there)가 아니라 여기 내 앞에 있는(I-here) 구체적 장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실존적 염려를 로컬화한 장소-내-존재에게 장소는 장소감을 제공한다. 장소는 더 이상 단순 물리적 공간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실존적 공간, 사회적·문화적 공간으로, 장소의 성격이 존재의 내밀화·내면화와 복합적 의미로 구성됨을 뜻한다. 내가 사고하고 노동하고 상상하는 곳이 구체적 장소라는 인식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소감의 결여로 우리 모두는 장소 상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 즉, ‘장소를 철학화하라!’란 명제는 지역학의 주요한 철학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학은 지역이란 장소성에서 출발한다.

4) 박치환, '철학의 장소화 하기', 영남대학교 인문교육학술원 발표 자료, 2022.

## II — 도시, 혁명

20세기는 국가주의의 시대였다. 20세기의 국가는 근대 산업화와 자본 축적 과정의 '식민지적 매카니즘'과 '파시즘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당연히 지역은 국가나 중앙 정부의 동원체제와 중앙의 하위 단위로 존재해 왔다. 국가의 하위 단위로서의 지역은 스스로의 멘탈리티를 주변화하고 자기 망실(亡失)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는 자신의 미래와 지역을 연결시키지 않는 청년의 등장으로 상징된다. 정체성 회복, 지역사회공동체의 복원, 지역 소멸 등 현재의 과제는 그 결과들이다.

한편, 국가주의는 국가 간 국경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대립적 상황 돌출 등 다양한 국가 분쟁을 낳고 있다. 국가주의적 패권과 세계화를 통한 자본의 집중이 결국 또 다른 갈등과 반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성찰로 우리가 사는 곳, 지역 혹은 도시에 대한 재발견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식민지를 재구성하는 국가주의적 망상, 현실을 넘어서는 지역성 회복과 도시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은 어느 국가에 사는가보다 어떤 도시에 사는가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도시(지역)의 역사가 국가의 역사보다 장기지속적이며 보편적인 것도 사실이다. 도시와 인간의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Robert Park의 발언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 바람에 따라 자신이 사는 세계를 개조하려 시도하는데, 도시는 가장 일관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도시를 만들어낸 이상, 운명처럼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임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간접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통해 자신들을 거듭나게 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도시는 건물과 도로가 아니라 인간이다. 도시는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다른 생명계와 동일한 네트워크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 때문에 생물학적 법칙이 적용된다. 도시 과학(science of city)이 성립되는 근거이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투입 요소와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발휘하는(sub-linear scaling law) 것은 모든 생명계의 공통된 특징이다. 생산성, 임금, 질병, 범죄 등과 사회경제적인 결과는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확 체증 현상(super-linear scaling law)으로 나타난다. 어느 사이에 이는 도시의 특징이 되었다. 자연히 삶의 속도(speed of life)는 도시의 규모와 함께 빨라지면서 생물계와는 대립적인 특징을 보이게 된다.

모든 유기체는 필연적으로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며 파멸이 불가피하지만,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 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는 기업이나 생물과는 달리 '차원(dimensionality)'을 확대하는 가운데 열린 성장(open-ended growth)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열린 성장을 위해서 도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부정적 Lock-in 현상에 직면한 도시는 이를 피하기 위해, 도시의 '시계'를 리셋(reset the clock)하여야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

5) Robert E Park, 'The city',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2019.

(start over again)시켜야 한다. 이를 도시혁명(Urban Revolution)이라 부른다.<sup>6)</sup>

도시혁명 개념을 재정립한 것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이다. 르페브르는 도시혁명을 역사적 사건의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명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산업혁명 이후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 과정은 결국 지속불가능이란 한계를 노정했다. 특히 국가 중심의 정책과 정치 형태는 지역 도시의 붕괴의 결과로 이어졌다. 새로운 도시의 관점을 확보하고, 도시에 대한 혁명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르페브르는 도시혁명을 공간 구획적 단위, city로부터 도시혁명적 관점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도시적인 것', the urban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획일적이며 고정된 기존의 도시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유동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르페브르는 '도시적인 것'이라 부른다. '도시적인 것'으로써 도시는 만남, 마주침, 동시성의 장소이다. 상품과 자본, 화폐, 사람, 정보 등 다양한 만남과 마주침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도시를 상정한다.<sup>7)</sup> 경제와 형태가 없는 유동적인 도시적 직조(urban fabric)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만남과 마주침의 도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지역학은 도시혁명을 통해 '도시적인 것'들의 도시를 만드는 일을 과제로 한다. 만남과 마주침의 주체를 통해 도시의 생기를 복원하고, 삶의 기운을 확보하는 과정이 지역학의 주요 내용인 것이다.

도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점층(漸層)이나 점강(漸降)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독립된, 그러나 끊임없이 도시의 내부 혹은 외부가 연결되는 과정 속에 있는 특수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지역학은 도시의 독자성과 지역 간 상호구조를 전제하면서 보편 세계와 연결된 방법적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문화의 리즘적 만남'은 주요한 방향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내부의 다양한 만남은 물론 국가라는 계보 밖에서의 도시적 만남과 마주침 등이 다양하게 기획될 수 있다.

20세기 한국 사회가 경험한 편집증적인 국가주의는 도시의 직조와 문화의 리즘적 만남을 파시즘과 중앙패권적인 집단 정치를 통해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도시를 단단하게 응고시키며 획일적인 국가 종속을 구조화하였다. 모든 만남과 마주침 또한 국가주의적 목표를 위한 것이며, 국가는 도시의 또 다른 검열의 기준이 되었다. 지역학은 이러한 국가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도시적인 것'들의 복원을 향한 혁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학은 도시에서의 만남과 마주침의 방식과 기획, 다양한 사회적 공유를 주요한 과제로 한다. 탈국가주의의 내외부를 관통하는 다양한 욕망의 방식과 인간 사이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학일 수 있다.

6) 김영철, '지역학과 도시학', 2019.

7) 박배근, '스마트 도시론의 급진적 재구성: 르페브르의 도시혁명론을 바탕으로', 『공간과 사회』30(2), 2020.

### III ——— 콘텐츠

지역학에 대한 요구 중 하나는 지역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다. 지역 자원의 관광자원화나 생산성 강화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 콘텐츠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지역 콘텐츠는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응축, 문화적 감성과 지역 생태계의 역학 속에서 구현하는 과정의 지역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콘텐츠는 지역학의 가치 실현과 실천 역량을 결합하는 융합적인 열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지역학은 부가가치가 높은 융복합 영역이다. 전통적 의미의 부가가치는 경제적 의미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된 요소들에 대한 값(보수)의 합계로, 노동에 대한 임금, 토지에 대한 지대, 자본에 대한 이자, 기업 활동들에 대한 이윤으로 분배된다.

지역학에서 지역 자료 혹은 자원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소실과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이며 실제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기반이 된다. 지역학 기반의 이 가치는 일정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역 자원이 도시의 지속성 및 새로운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과정에 있는 자원의 수집과 정리가 1차적인 과제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사건, 장소, 사람들의 활동이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응용하여 제2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역학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지역의 콘텐츠와 지역문화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지역학이 지역사나 생활사에 대한 정리와 지역 정체성 복원을 넘어 지역의 상품, 콘텐츠로 연결될 때, 지역학은 지역의 현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자원의 발굴과 콘텐츠 기획, 즉 지역 콘텐츠는 지역학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sup>8)</sup>

지역학과 지역 콘텐츠는 직접적인 관계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물론 역사와 공간, 인물과 경관 등 지역학의 대상이 곧 지역 콘텐츠의 핵심이다. 특히, 지역의 생활사는 지역 정체성을 고스란히 내재한 지역 콘텐츠의 중심에 있다. 생활은 개인의 존재감이자 일상적 공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생활사는 개인의 역사를 넘어 지역적 감각의 결정(結晶)이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콘텐츠들이다.

생활사 중 지역 콘텐츠로서 대표적인 것은 일상의 공간이다. 삶의 흔적과 과정이 켜켜이 담겨있는 일상 공간은 그만큼 대중적이며 다양하다. 골목에서 시작된 일상 공간의 탐색과 기획, 도시재생과 청년들의 크리에이터(Creator) 감각이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최근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역의 문화자산과 생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 가치를 만들고 있는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을 로컬 크리에이션이라 부른다. 이제 지역은 새로운 가치 증폭의 공간이며 지금은 지역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때다.

8) 이재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학의 응용과 과제』, 『한국지역학포럼』, 2017.

## IV — 기본, 그리고 지속적 방향

공간의 불평등은 이미 전면적이다. 위성 사진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불빛의 남방한계선이 그려져 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불빛은 희미하다. 몇몇 지역 대도시의 불빛은 아직 강렬하지만 불빛의 정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물론 불빛의 정도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역 불평등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불평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을 승자와 패자로 구분한다. 승패는 지역의 생산성, 혁신과 삶의 질, 경제 수준, 그리고 문화적 삶을 규정한다. 패자는 불만과 분노를 내재하고 지리적 열등감으로 공간 이동을 욕망한다. 당연히 청년 세대에게 그 욕망은 더욱 강렬하다. 그럴수록 지역은 더욱 황폐해져 간다. 그리고 지역 고립과 지리적 열등이 일상적 감정을 만들어가고 있다.<sup>9)</sup>

지역학의 탄생은 필연적이다. 아니 필사적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 가능성과 비전, 문화민주주의가 사라지면 지역 또한 사라진다. 이런 위기감은 지역학을 등장시켰다. 지역학은 일반적으로 국가 내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지역 또는 세계권 내의 국가 단위나 권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연구 또는 이해하는 학문을 말한다. 즉, 지역학은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특수성 및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과학문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학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학은 지역 및 공간,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학은 지역/중앙, 국가/지역,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삶의 불균형과 불평등 과정에서 탄생한 현실 학문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다면적이며 융합적인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거나 새로운 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로컬(Local) 크리에이션(Creation)의 의미를 강하게 내재한다.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공간 재생, 도시와 마을의 역사적 정체성 복원 등 지역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문화창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학의 시작은 1990년 초 지자체의 복원과 함께 지역 자치가 현실화되면서 지역과 중앙의 기형적 양대 구조를 극복하고, 국가 중심의 획일성에서 벗어나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연구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삶과 정신을 되찾거나 다양성과 유일성, 보편과 특수, 통합과 다원 등이 사회적 복잡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변화와도 연결된 새로운 학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9) 박승희, 『창조융합문화도시, 대구경북을 제안한다』, 영남일보, 2022.3.1.

10) 정삼철,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 공공정책』 p. 64, 한국지리학회, 2019

11) 김영화·김태일, 『대구경북학의 모색』,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4

도시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지역학의 새로운 방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화와 국가 간 대립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분할된 인간 삶의 핵심적 단위인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과 독자성을 살피는 도시학이 지역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학은 한국학의 토대가 되고 있다. 단순한 지역 중심적 사고의 파편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풍부한 한국학의 토대이자 뿌리이다. 지역 인문·사회 콘텐츠의 기반으로서의 지역학은 한국학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크다. 더욱이 지역 자료와 기억 망실로 지역에 대한 흔적 및 지역사의 소멸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지역학은 이후 한국학의 방향과도 깊이 관련된다. 나아가 다원 사회의 개방적 사고를 통해 지역의 포용 가치에 기반한 미래사회를 연구하고 기획하는 미래학의 의미도 내재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학은 시대와 지역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탐색, 연구를 위한 현장 중심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시는 본래 잉여생산물이 사회, 지리적으로 집적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고 자본은 계속해서 잉여를 증식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관철하려 한다. 하지만 도시의 주인인 인간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sup>12)</sup> 라는 하비(David Harvey)의 말은 지역학의 또 다른 질문이다. 최근의 도시학이 지역학의 주요 방향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시는 차이에 근거한 독자적 도시성(urbanity)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도시는 ‘차별화된 공간(differentiated space)’으로서 독자적 도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로서가 아니라 ‘도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 정체성의 핵심은 인간 중심의 도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 위에 지역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지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첫째, 지역학은 개별 지역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국가나 민족, 영토와 공간 등으로 구획되는 지역학은 일종의 제국적 발상이자 근대자본의 논리에 가깝다. 식민지 제국의 점령과 자본 증식을 위한 지역 우선과 지역 개발이라는 지역학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내부를 가로지르며 민족이라는 우월적 경계를 벗어나는 지역학, 도시와 독자적 삶의 실체로서의 지역학에 대한 재발견, 즉 탈지역학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세계화’라는 기능적인 목표를 제고해야 한다. 지금의 글로컬리즘(Glocalism)은 지역의 우수성을 세계와 연결시켜 기능적으로 지역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세계의 관계 형성은 세계 체제나 세계 질서로의 국가 편입, 그리고 국가 위상의 확보라는 기존의 국가 층위와는 다른 층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학으로서의 글로컬리즘은 지역과 세계의 차이에 대한 긍정과 공유적 가치의 발견, 이를 통한 지역의 세계적 존재론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12) 데이비스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2012.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공유 방식과 사회구성체, 도시화와 지역의 생산 양식, 지역의 문화심상 등 지역 속의 세계적 가치나 주제의 지역적 분석 등이 지역학 연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의 문화 아젠다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의 경계와 긴장에서 벗어나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아젠다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한다. 지역 소재주의로부터 벗어나 지역적 공유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담은 새로운 문화 아젠다가 필요하다. ‘문화적 이질성(heterogeneous)과 지역문화의 탄생’, ‘지역을 가로지르는 문명사’, ‘지역의 문화적 쇠퇴’와 ‘문화 불평등’, ‘지역의 문화적 회복탄력성과 지역 연대’ 등 다양한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지역적 소재 활용에 앞서 지역과 지역을 잇는 지역학 연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적 범위 혹은 기능적인 지역 세계화에 묶여 있는 연구 대상과 과정, 범위, 그리고 결과물로부터 횡단과 이탈의 지역 및 도시연구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가주의적 계보로부터 벗어나 지역에 대한 우발적이면서 리좀(Rhizome)적인 시도와 기획이 전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영화 · 김태일, 『대구경북학의 모색』,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4.
- 데이비스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2012.
- 박배균, 『스마트 도시론의 급진적 재구성: 르페브르의 도시혁명론을 바탕으로』, 『공간과 사회』30(2), 2020.
- 박치완, 『철학의 장소화 하기』, 영남대학교 인문교육학술원 발표 자료, 2022.
- 박승희, 『창조융합문화도시, 대구경북을 제안한다』, 영남일보, 2022.3.1.
- 이재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학의 응용과 과제』, 『한국지역학포럼』, 2017.
- 정삼철,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 공공정책』164, 한국자치학회, 2019.
- Derrida, cited by B. Janz, “In philosophy as if place mattered”
- E. S Casey, “Getting Back Into Place”
- Rober E Park, 『The city』,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2019.

기 획 특 집 0 2

# ‘지역’ 과 ‘지역학’ 네트워크

김성하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1 — ‘지방’에서 ‘지역’으로

최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관점과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대립되는 관점은 지방소멸이라는 현상과 지역활성화라는 현상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멸’과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두 지향점을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혹은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 특히 인구 유출의 가속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지방쇠퇴 혹은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방소멸에 대한 경각심은 일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착안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5년 개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결과에 따라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 80곳, 2020년 102곳에서 2022년 3월 기준 113곳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1)

이상호(2022)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로 정의된다. 현실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매우 단순화된 조건을 가정할 때 소멸위험지수 값이 0.5미만(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국가, 광역, 기초지역)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이 지수 값이 0.2미만(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1/5미만)이라면, 소멸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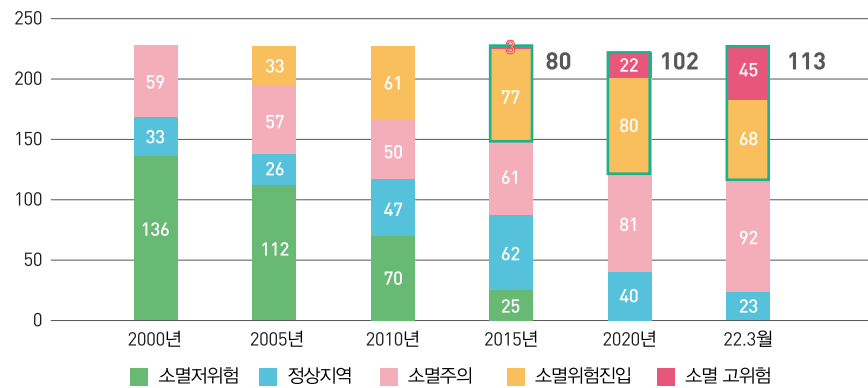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진입(0.5미만)’과 ‘소멸고위험(0.2미만)’으로 구분되는데, 지난 2015년 이후 증가추세인 소멸위험지역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2015년 소멸위험지역 80곳 중 ‘소멸고위험(3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에서 2020년 약

1) 이상호(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p.9.



21.6%(소멸고위험 22곳), 2022년 약 39.8%(소멸고위험 45곳)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멸위험진입’은 2015년 약 96.3%(소멸위험진입 77곳)에서 2020년 약 78.4%(소멸위험진입 80곳), 2022년 약 60.2%(소멸위험진입 68곳)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그림 1〉 소멸위험지기초지자체 수(시군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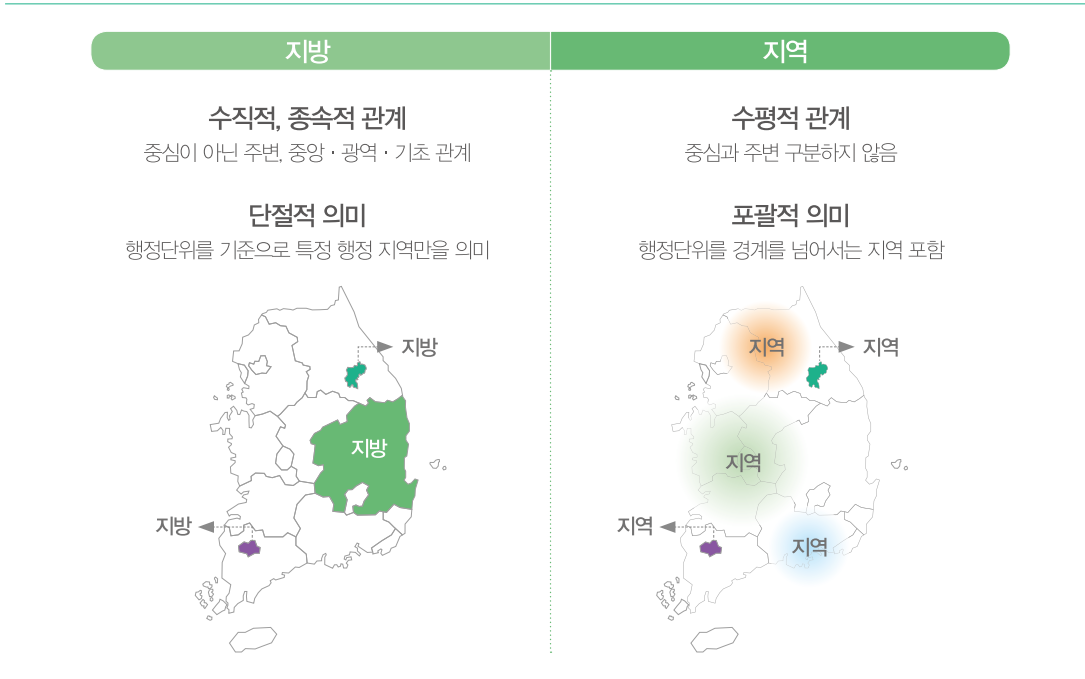
자료: 이상호(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p.10.

지방소도시의 쇠퇴 혹은 소멸위기가 인구감소라는 표면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내재적 원인으로 대도시 중심 국가발전계획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도시 중심의 국가발전이라는 축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은 국가발전을 위한 중심축이 아닌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전의 중심축에 포함되지 못한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됨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으며, 또한 지역발전의 한계로 지방쇠퇴 혹은 지방소멸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발전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방쇠퇴 혹은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 방안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은 이제 더 이상 주변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으며, 지역 고유의 역사성, 장소성, 정체성을 찾아가며 지방이 아닌 지역의 주체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과 혁신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실천의 첫 단계로 먼저 ‘지방’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지방’은 “어느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사회 통념상 ‘지역’이라는 용어보다, ‘지방’이 중앙 혹은 중심에 대비되는 주변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이해되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닌, 서울 이외의 주변으로서 지방’, ‘중앙

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로서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서 지방'이라는 의미와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림 2〉 지방 vs 지역



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11.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라는 수직적 행정조직의 근본적 속성에 따라 중앙과 주변의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관계를 당연시하고 지속한다면, 이는 국가발전의 보이지 않는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급기야 가시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근본적 수직관계를 허물 수는 없지만, 국가발전이라는 큰 방향을 고려한다면,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은 필수조건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지방'이라는 단어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지방자치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과감한 분권과 자치를 위한 혁신의 실천으로서 '지역정부'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어 혹은 명칭 변경이라는 형식적 변화보다 실질적이며 내용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식적 변화와 내용적 변화의 우선순위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내용적 변화가 중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가능한 형식적 변화를 통하여 내용적 변화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형식적 변화는 긍정적 요소로 먼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방'으로 남아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구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 ‘지방’이 아닌 ‘지역’으로 거듭남으로써,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의 고유성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국가 문화정책의 기초가 국가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도 관계가 있다. 지역중심 문화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자율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은 지난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새 문화정책’으로서,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지역문화’가 문화정책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특히 ‘지방문화진흥법’이 아닌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지역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략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의 핵심과제는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 보전, 활용할 수 있는 ‘지역학’의 확산일 것이다.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제 지역은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바탕으로 서서히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고유성, 즉 지역문화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지역학’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기를 되찾아 지역발전으로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지역학’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II — ‘지역학’ 네트워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지역학(地域學)’을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특정 지역의 지역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구명하는 학문”인 ‘지역지리학(地域地理學)’과 구별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지역학’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만을 구획하고 그 공간의 성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만 정의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학의 사전적 의미를 확대해 보면, 지역학이란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그 공간에 흐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모두 아우르며, 공간에서 비롯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래 지역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이 다양한 관점과 방법에서 융합되는 일종의 학제 간 연구 혹은 융합학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또한 지역학은 지역이라는 시·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여러 이야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내용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표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발전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강조된다.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 즉, 지리적 공간과 그 공간에서 비롯되는 역사, 문화 등과 함께 폭 넓게는 사람들의 삶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지역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역학의 발전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른 지방화 시대의 도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sup>3)</sup> 그래서인지, 현재 지역학 관련 연구소 명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적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개 시·도(광역시) 모두 해당 광역 시·도명을 사용한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14곳에서 해당 ‘지역명’에 ‘학(學)’을 붙여 지역학 연구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광역시) 지역학 연구소 명칭 현황

명칭	광역시도	지역학 연구소	광역시도	지역학 연구소
“지역명” + “학” 연구소(센터) (14개)	서울특별시	서울학연구소	경기도	경기학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부산학연구센터	강원도	강원학연구센터
	인천광역시	인천학연구원	충청북도	충북학연구소
	광주광역시	광주학연구소	전라북도	전북학연구센터
	울산광역시	울산학연구센터	제주도	제주학연구센터
	대전광역시	(공통) 대전세종 지역학연구센터	대구광역시	(공통) 대구경북학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지역명” + 연구소(원) (3개)	충청남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경상남도	(국립)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전라남도	(국립)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남도문화연구소 (국립)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46.

이 중 11개 시·도 지역학 관련 연구소는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에 ‘센터’ 혹은 ‘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등은 ‘대학(시립대 혹은 국립대)’에서 지역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 경기학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대구경북연구원 분리가 결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대구경북학연구소는 경북연구원에서 운영하게 되었다.(표1)

3) 김병철,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강원개발연구원, 2000. / 김남용, 김두만(2017), ‘의정부학 정립을 위한 추진방안’, 의정부시 제4기... 행정혁신위원회 2017 상반기 연구과제 보고서, p.383, 재인용.

〈표 2〉 지역(광역) 및 운영주체별 지역학 연구소 현황

운영주체	광역시도	지역학 연구소 명칭
산하 연구기관 (11개)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울산광역시	울산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강원도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충청북도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제주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충청남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대전광역시	(공통)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공통)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2023.1.)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 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경상북도		
대학 (5개) (국립/사립/사립)	서울특별시	(사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인천광역시	(국립)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광주광역시	(사립)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광주학연구소
	전라남도	(국립)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남도문화연구소 (국립)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경상남도	(국립)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광역문화재단 (1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기타)		
대학 (국립/사립)	강원도	(국립)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경상북도	(국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부산	(국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사립)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국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학'강좌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연구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음

주: '대구경북학연구소'는 2023.1.1.부터 '경북연구원'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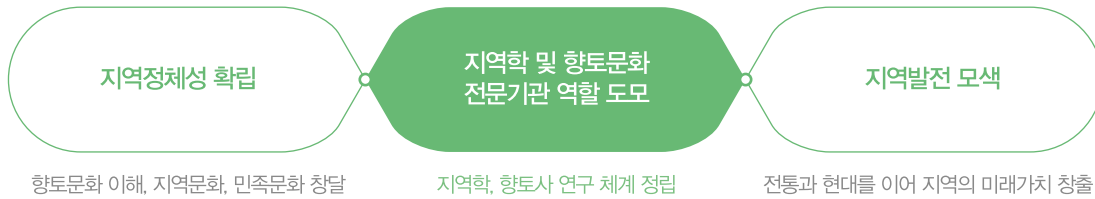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46.

기초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원학연구센터, 아산학연구소 등 7곳의 기초지자체 산하연구 기관 혹은 대학(사립/국립)에서 행정적 지역명을 사용한 지역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21년 8월 기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 중 119개 문화원이 지역학연구소, 향토사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학 관련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지역정체성 확립, 둘째 지역학 및 향토문화 전문기관 역할 도모, 셋째 지역발전 모색이

다.(그림3) 이는 곧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학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학연구소를 새로이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시간적, 행정적, 재정적 등 여러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학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30개 지방문화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중 119개 문화원에 이미 지역학 관련 연구소 및 관련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광역 단위의 지역학연구소와 연계·협력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학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역 단위의 지역학 연구소가 이들과 연계·협력함으로써 행정단위로 구분된 지역학 연구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내 지역학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한다면 ‘지역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문화정체성, 지역발전 등을 견인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림 3〉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 설립 목적



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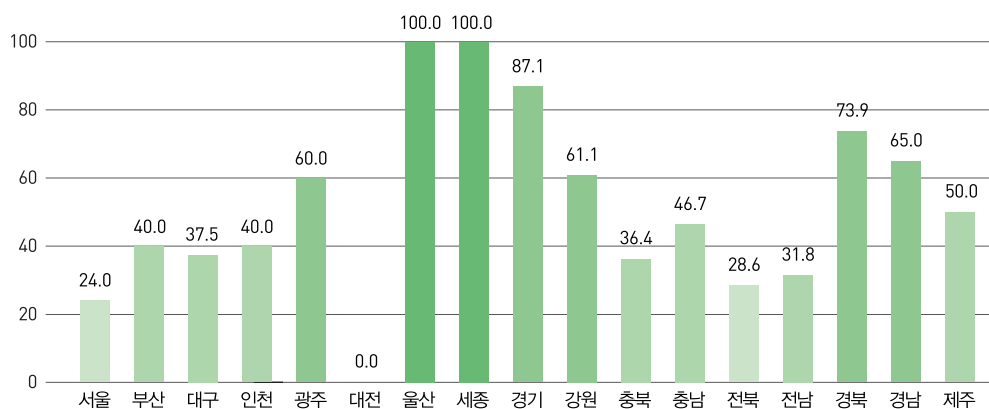
전체 지방문화원 230개 중 지역학 관련 연구소 및 단체를 운영하는 119개 지방문화원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의 경우 5개 지방문화원 모두 관련 연구소 및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경북, 경남의 경우 60% 이상 관련 연구소 및 단체를 운영(표3, 그림4)하고 있다. 이들 중 ‘○○(지역명)학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약 11%(13개)로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은 ‘향토사 연구소(41개)’ 혹은 ‘향토문화연구소(40개)’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학 관련 연구소 명칭에 ‘지역명 혹은 지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곳은 25개(21%)이며, 전체 119개 중 93개(약78%)가 ‘향토’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학’이라는 용어의 확산 자체도 광역 단위 지역학 연구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표4)

〈표 3〉 지역(광역시)별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 단체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전체 문화원	25	15	8	10	5	5	5	1	31	18	11	15	14	22	23	20	2	230
지역학 관련 연구소, 단체	6	6	3	4	3	0	5	1	27	11	4	7	4	7	17	13	1	119

자료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36.

〈그림 4〉 지역(광역시)별 지역학 관련 연구소, 단체 소속 지방문화원 비중



자료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36.

〈표 4〉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 단체 명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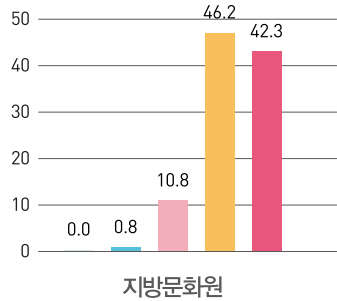
구분(항도+지역명)	개소	소계	구분(지역명+지역학+기타)	개소	소계
항토사연구소	34	41	○○ 학연구소	13	14
○○ 항토사연구소	7		○○ 지역학연구소	1	
항토문화연구소	33	40	지역사연구소	2	2
○○ 항토문화연구소	7		○○ 지역문화연구소	1	1
항토사연구회	5	7	○○ 지역학연구위원	1	1
○○ 항토사연구회	2		지역문화(항토사)연구소	1	1
항토문화연구회	1	2	○○ 역사문화연구소	3	3
○○ 항토문화연구회	1		○○ 문화연구소	3	3
항토사연구위원회	2	2	실직문화연구회	1	1
항토사학회	1	1			
총계		93	총계		26

주: 강원삼척문화원에 '실직문화연구회'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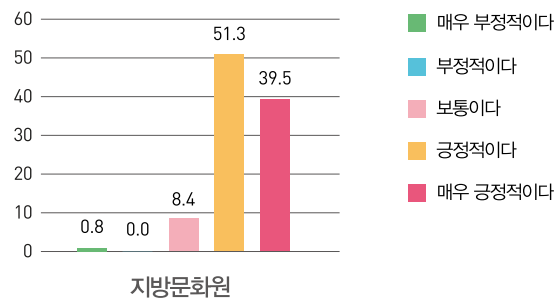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38.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2021)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지역학 거점 역할 관련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대상 인식조사 결과(2021. 6), 지역학 거점으로서 문화원 역할 확장에 대해 88.5%가 긍정적(긍정적이다+매우긍정적이다)으로 인식(그림5)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91.5%가 지역학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90.8%가 사업 수행 경험에 만족(그림6)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지역학 거점으로서 문화원 역할 확장에 대한 인식



〈그림 6〉 지역학 관련 사업 수행 경험 평가(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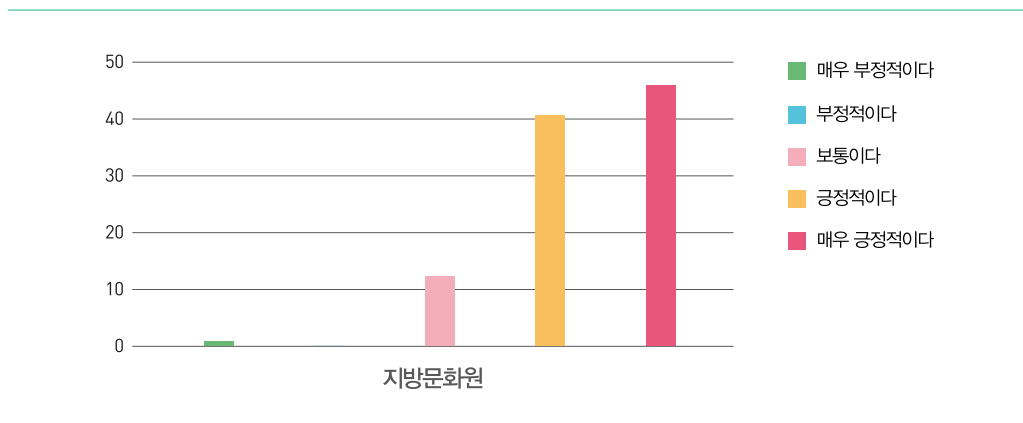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70~77.

또한 87.0%가 지방문화원 정체성과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이 부합한다(그렇다+매우그렇다)고 인식(그림7)하고 있으며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과 지방문화원 정체성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문화원 고유 역할과 지향점 부합’,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의 충분성’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에서 역사, 생활문화 보존 및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 사료, 관련 서적 및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된 2차 콘텐츠 등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대상 FGI 결과(2021.7)에 따르면, 지역학 거점으로서 지방문화원의 장점으로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축적된 지역자료 및 풍부한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그림 7〉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과 지방문화원의 정체성 부합 여부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72.

이상의 인식조사 및 FGI 결과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가 설립목적으로 ‘지역과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와 지역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문화, 민족문화 도모’, ‘전통, 향토 의미를 현재, 미래로 확장하여 미래가치 제고 도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원은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 확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를 지역학 거점으로 그 역할을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향토 관련 조사 연구 등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사 혹은 일상의 기록을 위한 활동으로 문화원의 역할이 확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의 과거만이 아닌, 현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을 만들어가는 실천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학 연구기관, 연구자 등을 이어주는 지역학의 매개자로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 단위의 지역학 연구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광역 단위의 지역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지역학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가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학에 내포된 지역의 중요성이 궁극적으로 지역간 수평적 관계에 근거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존의 향토사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 등에서 지역학연구소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지역의 일상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 양성과 마을기록관 설립 운영을 통하여 지역문화원의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단위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학은 단절적이며 협소한 지역학으로 멈출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지역학의 물리적 기반이 행정 단위의 지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정 단위의 한계 내에서 지역학 관련 연구소가 설립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한

다면, 광역 단위의 지역학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 점차 소멸해 가는 지방이 아닌, 생기가 샘솟는 지역으로 다시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지역학의 역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학 네트워크는 기초 단위의 지역 내 다양한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을 시작으로 지역학 거점들 간의 연계 협력이 필수이며, 이는 광역단위의 지역학연구소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역할이 될 것이다. 나아가 광역과 광역 간 지역학 연구소의 연계 협력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지역학 네트워크는 지역의 색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해 주는 기반이 될 것이며, 지역마다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 내는 핵심 재료가 될 것이다.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과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들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한 지역학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김남용, 김두만(2017), '의정부학 정립을 위한 추진방안', 의정부시 제4기 행정혁신위원회 2017 상반기 연구과제 보고서.
- 김병철(2000),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강원개발연구원, 2000.
- 노영순 · 이상열 외(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 이상호(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새문화정책준비단(2018.05.16.), 『문화비전2030』.
- 문화체육관광부(2020.02)『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http://www.elis.go.kr)).
- 지역문화 홈페이지(<https://www.nculture.org/man/main.do>).

기 획 특 집 0 3

# 호명과 경관으로 바라본 대전의 지역정체성<sup>1)</sup>

한상헌 /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장

## 1 — 이름과 장소 - 지역학 연구의 단골 소재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인 정치·경제·문화적 특성들을 주민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성립된다.<sup>2)</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정체성은 형성되는 ‘과정’이며 지역정체성의 행위자(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에 관심을 갖는 타지인도 포함된다)의 문화적 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학은 과거의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복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역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지역정체성이 형성되는 여러 과정과 수많은 요소 가운데 지역학 연구에서 자주 다루는 두 가지 소재, ‘이름’과 ‘장소’에 국한하여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려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이라기보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인 ‘호명(呼名)’이다. ‘호명’은 일상적으로도 ‘이름을 부르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지만 이 글에서 사용되는 ‘호명’의 의미는 ‘이데올로기<sup>3)</sup>’와 밀접히 연결되면서 특정하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에 집중한다.<sup>4)</sup> 호명을 통해 정체성을 특정하게 형성하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들은 종종 특정한 프레임(틀짓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징적 투쟁들은 지역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장소’이다. 장소와 장소성은 매우 깊은 철학적 사유를 필요로 하지만 이 글에서는

1) 이 글은 <제17차 한국지역학포럼(2019년)>과 <제18차 한국지역학포럼(2022년)>에서 한상헌이 발표한 것을 병합하고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2) 임병조(2009)에서는 홍성의 일부 지역이었던 새로운 충남도청 소재지가 ‘내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내포’로서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역연론보다 내용을 통해 밝히고 있고, 조관연(2009)에서는 독일의 근대 통일국가 형성기에 쾰른의 시민들이 카니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 내용과 맥락이 지역정체성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서술된다.  
 3) 통상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하게 공유되는 가치관이나 믿음’을 뜻한다. 이데올로기는 일상 속에서 다양하면서 도처에 미세하게 편재해 있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나 미디어 재현을 통해 남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갖도록 설득하거나 거꾸로 설득당한다(Sturken & Cartwright, 2001/2006: 11).  
 4) 알튀세(L. Althusser)는 기존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확장하여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사고나 믿음의 체계’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호명(interpellation)’ 개념을 도입한다. 알튀세에 의하면 ‘호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어와 이미지로 전달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스스로 구축되는 과정’이다(앞의 책, 41).

대전의 ‘경관’에 국한해 ‘장소성’의 중요성에 아주 살짝 다가가려 한다. 도시정체성이 담긴 도시경관은 일목요연하게 정비되는 시각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적 주민들에게는 정체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정서구조(structures of feeling)의 역할을 하고, 외부에서 온 방문자들에게는 도시의 특성을 느끼도록 하는 도시브랜드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리학자 랠프에 따르면 “‘장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세계이자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토대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지역과 장소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보호하고, 근거의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곳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라고 한다. 장소성의 요소들은 특정 장소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관·도시·지리적 환경 등 넓게 스며든다. 장소성은 눈에 보이는 고정적 실체라기보다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내·외부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장소성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 과정은 우리들의 ‘경험’이며, 우리의 오감을 통한 구체적 경험이 있어야 그와 관련된 정체성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Relph, 2005).

## II — 호명이 틀 짓는 지역정체성의 몇 가지 사례

### 01 대덕구에 없는 대덕연구단지

과학도시로서 대전이 지역정체성을 지니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국가연구기관이 대전에 밀집되기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20세기 내내 ‘대덕연구단지’로 불리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전의 다섯 개 자치구 중 대덕연구단지는 유성구에 분포되어 있고, 정작 대덕구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대전을 잘 모르는 지역에서 볼 때는 당연히 대덕구 내에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대덕’연구단지일까?

일제강점기인 1914년 충청지역의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대전 일대 지도를 보면 지금의 대전 지역 대부분이 대전군이었고 그 안에 대전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대전면이 계속 성장하면서 대전부로 확대되고 대전군은 대덕군(大德郡)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시대부터 기호유학(畿湖儒學)의 본산이던 회덕면(懷德面)은 대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지였고, 한때 대덕군은 또 다른 유학의 집성지인 남서쪽의 진잠(鎭岑) 지역과 남동쪽의 산내(山內) 지역, 북쪽의 신탄진(新灘津)을 아우르는 거대한 지역이었다. ‘대덕연구단지’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덕군은 대포 축소되어 구로 신설되면서 ‘대덕연구단지’의 ‘대덕’은 독자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림 1〉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대전의 강역(좌)과 해방 이후 1945년 행정구역(우)



자료: <충주일보> 2015.6.19.

중요한 것은 ‘대덕’의 ‘독자적’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했던 익명의 과학자의 회고에 따르면 대부분 서울의 엘리트층이었던 과학자 또는 과학자 가족들이 대덕연구단지의 설립으로 대전에 이주하게 되면서 사회자본의 상실이나 불안을 느꼈다고 한다. 어떤 이들에게 ‘대전’이라는 의미는 서울과 먼 변방의 의미가 컸고, 이때 ‘대덕’은 ‘대전’과는 구별되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엘리트 집단의 집결지라는 특별함으로 다가왔다.

## 02 자발적 틀짓기: ‘유슈쥬~’

많은 지자체에서는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미래유산’ 등으로 표현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외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시브랜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한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수시로 만들어내는 도시슬로건의 사례만 떠올려봐도 거의 모든 도시가 영어단어를 작위적으로 조합하고 있을 뿐 울림이 없다. 대전도 다를 바 없어 그간에 통용되었던 “잇츠대전”은 정체성과 목표를 알아채기 어려워 많은 이들이 가우뚱하였고,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채택된 슬로건은 “대전이쥬”였다. “Daejeon IS U”, “대전 이즈 유”로 어색함을 탈피하려 하였지만 어쨌든 “대전이쥬”에서 확실하게 와닿는 것은 “~쥬”라는 충청도 정감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대전의 특성이 “~슈, 쥬, 유”로 표현되어야 하는가?<sup>5)</sup> 넓은 지리적 범위를 지니고 있는 충청지역은 동서남북 각 지역마다 화법이나 음식문화 등 전통적 생활양식의 차이가 상당하고, 지역에 따라 전북이나 충북 등 다른 광역도와 더 유사한 경우도 흔하다. 특히 근대도시로서 급속히 발전한 대전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다른 지역 출신 비율이 많은 현대 도시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에도 충청도 사투리로 획일화된다.<sup>6)</sup>

5)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는 대전 공유자전거의 명칭 ‘타슈’에 대해 촌스럽다고 놀리던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광주 공유자전거의 명칭이 “타랑께”로 정해지자 역공을 당한다는 일화가 등장한다.

6) 이러한 주장이 대전을 제외한 다른 충청도와 대전의 위계를 설정하지는 의도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20세기의 TV드라마 등 많은 문화콘텐츠에서 충청도를 특정한 직업군으로 정형화하는 문제가 계속되어왔고, 최근까지도 정치적 선거가 열릴 때마다 대부분의 판세 분석에서는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을 충청권으로 한데 묶어 동일시하는 커다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 03 타율적 틀짓기: '노잼도시'

최근 대전을 둘러싸고 배회하는 '노잼도시'라는 유행.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밈으로 떠돌던 '노잼도시'는 2019년 7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노잼도시'로 대전을 소개하면서 대전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고 있는 중이다. 과연 대전이 '노잼도시'로 호명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연구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주변의 지인들에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미로 넘치는 도시는 어디가 떠오르나요?” 세대를 막론하고 의외로 쉽게 답변하지 못한다. 간혹 제주(제주도는 도시가 아닌 광역도이다), 군산(대전보다 도시 규모가 훨씬 작다) 등이 거론되지만 대전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 재미있다고 자신있게 떠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 광주나 대구, 울산의 경우 “우리 도시도 재미없어”라는 강변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후 대전시의 문화관광정책 수립때마다 “노잼도시 탈피하여 꿀잼도시로 만들자”거나 “차라리 노잼도시를 대전의 고유한 콘텐츠로 승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자” 등의 주장이 반복되면서 대전은 어느 방향으로든 대내외적으로 '노잼도시 프레임'<sup>7)</sup>을 벗어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다.

## III — 대전의 경관 정체성과 장소성

### 01 대전 경관의 형성

일반적으로 교통의 요지라고 인식되는 대전의 도시정체성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부여된 것이다. 대전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3대 하천이 도심을 관통하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리적 요충지였던 탓에 가장 많은 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대전 경관은 군사요충지로서 높은 산과 넓은 평야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1904년 한일협정과 경부선의 개통이 되고 대전역이 설치되어 일본인 거류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형성되었다. 그 때문에 근대 대전의 경관은 경부선 철로를 중심으로 현재의 기존도심 지역이 저층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주변의 자연경관에 의해 에워싸여진 모습을 띄게 되었다.

대전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경관적 축은 크게 두 개가 꼽힌다(염인섭, 2018). 하

7) '프레임'은 “인간이 실재를 이해하도록 해 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Lakoff, 2001/2007: 45)”라고 정의된다. 프레임은 이에 그치지 않고 때때로 현실을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구성한다. 레이코프(G. Lakoff)는 프레임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인지과학의 영역임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프레임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사용하며 반복하면서 각인된다. 미디어의 '어휘적 프레임'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심층프레임'을 활성화하고 자극하여 대중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Lakoff, 2001/2007: 45-50).

〈그림 2〉 대동여지도의 대전(좌)과 1930년대 대전 전경(우)



나는 근대화도시로서 생성된 대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원도심 일대이며, 다른 하나는 대전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연정국악회관, 한밭수목원 등이 집결된 1990년대 이후 조성된 지역이다. 여기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 등 과학집적단지를 과학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조선 초 기호유학의 근거지인 회덕 지역 일대를 포함한다면 몇 개의 문화 축을 더할 수 있다.

## 02 대전 경관의 핵심 축, 원도심

대전의 다양한 장소정체성 중 ‘근대도시 대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는 연원 지역은 ‘원도심’이라 불리는 지역이다.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여 년 사이의 일이다. 원도심은 현재의 중구 대흥동과 은행동, 선화동, 원동, 중동, 정동, 소재동, 신안동, 삼성동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1900년대 초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대전이 도시로 형성,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출발이 되었던 지역이다. 원도심은 지난 100년간 진행된 대전의 도시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그 중심 기능을 수행했던 곳으로 ‘근대도시’로서의 대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원형과 같은 장소로 중요성을 지닌다.<sup>8)</sup> 2002년 대전시는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사업명이나 구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고 곧이어 2003년 전국 최초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전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구도심’이나 ‘기존도심’이 아닌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도심이 도시정체성을 핵심적으로 갖추고 있는 중요 지역이라는 문화적 자각을 뚜렷이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권선정 외, 2009).

8) 조선시대에는 원도심이 아닌 대덕구 읍내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대가 회덕현과 진잠현의 읍치로서 전통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아직 대전이라는 도시가 행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현재 시 지정 문화재자료를 포함하여 대전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상당수가 원도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대전광역시 관내 등록문화재 중 대다수가 원도심 권역에 있다. 서구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 건축물들은 소위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맞물려 대전이 근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주요한 지표이다(염인섭, 2018). 원도심의 근대적 경관은 전 세계적 수준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상황에서 대전이 근대적, 서구적 형태의 도시로 형성,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서 ‘근대도시 대전’의 장소성을 구성하는 의미를 제공한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원도심의 문화적 특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몇 년 전부터 노력 중이다.<sup>9)</sup>

### 03 경관 정책과 장소성의 괴리

이들 근대 경관들의 의미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그 기억도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기억의 재현이나 형태상 원형의 복원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되며, 현재적 입장에서 그 의미가 재구성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장소정체성을 구성하고 경관을 장소로 읽는 틀을 개발하는 지속적 의미화 작업이 필요하다. 경관은 한 번 손실되면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 가능하더라도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근대 경관을 평가하거나 짧은 시간 내 변화를 이루려는 성급함은 경계해야 한다.

아래 사진의 목척교는 일제강점기 시기 대전에 놓인 최초의 다리로, 애초에 나무로 지어졌던 것에서 1970년대 복개하고 다시 해체를 반복하는 동안 대전 근대사의 애환이 담긴 장소이다. 다리 아래 스케이트장의 추억이나 다리 양 옆으로 당시로서는 호화 상권이었던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있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새로 설치된 첨단미래형(?) 디자인은 낯설기도 하다.

〈그림 3〉 목척교의 1970년대 모습과 재건축된 최근 모습



9) 비근한 예로 원도심 근대화탐방로의 조성이다. 원도심 근대화탐방로는 동구와 중구 원도심 일원의 9개의 근대건축물을 테마로 해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한 역사문화 거리로, 옛 산업은행-목척교-옛 대전부청사-옛 충남도청-옛 충남도관사촌-옛 대전여중강당-대흥동성당-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옛 조흥은행 등 총 길이 5.17km이다. 그러나 점과 선의 연결만 있을 뿐 점과 얽힌 경험이 나타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을 규정하는 경관을 조성하려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대전광역시 1974년 대덕연구단지 구축으로 산업연구시설의 집중화가 이루어져 중부권의 대표적인 거점 도시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덕연구단지는 한국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대전이 과학도시로 거듭나는 데 매우 큰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되어 두 세대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민들이 일상에서 과학을 영위하고, 과학도시 대전을 만끽할 수 있을 정도로 대전이 ‘과학문화도시’로 정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대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니지만, 연구단지가 입주한 도시일 뿐 실제 도시환경은 과학과 철저히 유리되어있는 실정이며, 도로, 건물, 공원, 산책로,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도시환경이 대부분 과학과 무관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제기된다.

#### 04 형성되는 장소성을 녹여내는 경관정책 필요

결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대전 시민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성을 대전광역시 곳곳에 부여하는 것이다. 도시의 장소성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관련되며, 도시의 특성을 드러내는 한편, 도시의 미래 지향의 방향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장소성은 단순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역동적이다.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경관정책들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대전 시민의 정서에 미치는 장소성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많다. 대전의 장소성(the identity of place)으로 교통도시, 과학도시, 역사도시, 하천도시,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도시정체성을 온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의 도시경관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투영되지 못한 채 맥락 없는 난개발이 계속되었고, 도시민의 문화적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거리, 건물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공간들에 어떻게 장소성을 투여할 것인가 고민하는 깊이에 따라 진정한 의미를 갖추게 될 것이다.

## IV — 스스로 정체성을 견지하여 다른 지역을 이해하는 지역학의 과제

수십 년 전 충남 부여에 여행을 갔을 때 읍내 보행 인도에 깔린 백제 와당 무늬 블록을 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비록 현대에 만들어진 제품이었지만 필자에게는 어떤 문화재보다도 쾌망한 고도로서가 아닌 찬란한 백제의 문화정체성을 간직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가보니 새빨간 자전거 도로로 모두 바뀌어 와당무늬 블록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도 이 기억이 새록새록한 것은 맥락없이 시류를 좇는 지자체의 정책이 이렇게 한 순간에 장소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대전에는 ‘선화단길’이라 불리는 골목이 예쁜 카페와 음식점들이 급증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14년 정부의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선화동이 선정되면서 이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옛 충남도청 담장이 새롭게 정비되었고, 가로등과 경관조명시설, 벤치 등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경리단길’이나 ‘객리단길’ 등 타 지역의 특화거리를 단순 모방하게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만 출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공존한다. 여기에 한정된 예산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자체 주도의 경관정책이 결코 장소성을 높이고 있다고 바라보기 어려운 조약함도 공존하고 있다.

임석재(2013)의 말처럼 문화재는 관광상품이 아니고 인류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 동시에 이곳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함께하는 살아있는 현재진행형이다. 문화재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인간 관계를 복원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 선화동은 옛 충남도청 등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고 대전의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원도심이자 추억과 낭만이 남겨진 장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장소성이 간과된다면 또 하나의 무의미한 먹자골목만 늘어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선화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광역시 곳곳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도시재생이나 도시브랜드 활성화가 각 지자체마다 중요과제로 대두되면서 도심을 인위적으로 예쁘게 만들고 신기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사람을 모이게 하려는 사업들이 종종 추진되곤 한다. 그러나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것과 이 지역의 장소와 역사성을 최대한 살려 이를 통해 이 지역을 활성화하느냐의 차이(조성남, 2018)”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호명의 효과에 대해서는 무의식중에도 이미 체화되어 욕망에 따른 근시안적 지명 변경으로 이어진다. 지자체별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은 지역소멸의 위기 담론이 팽배해지면서 생존경쟁 속의 자구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 경우도 많다. 대전 서구 ‘삼천동’은 대전을 관통하는 3개 하천이 한데 모인다는 의미로 대전의 대표지역임을 나타내주며, 풍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지명이다. 하지만 오직 아파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 ‘둔산3동’이라는 특징 없는 지명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이 밖에도 대전 곳곳에서는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가수원동'을 '도안2동'으로 변경하려는 등 한없이 가벼운 자본의 욕망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시도가 진행 중이다.

호명과 프레임은 어쩌면 편의적 케어리즘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역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로 귀결될리 만무하지만 우리는 쉽게 '충청권', '노잡도시 대전'으로 낙인한다. 도시가 생성되고 지역이 형성된 역사는 수많은 사연 속에서 변화한 결과물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범위와 특성도 늘 변화한다. 대전은 충청남도의 거점도시로 발전했지만 한편으로는 백제문화권의 한 자락으로 전라북도까지 긴밀한 유대감을 간직하였고, 금강유역권의 테두리 속에서 충청북도와 친화성을 지니기도 한다. 대전을 규정하는 지칭어들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우리가 지역학 연구를 해야 할 가장 큰 당위성은 우리만을 고집하고 다른 지역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을 이해하고 포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를 알아가는 준비과정에 가깝다. 장소와 경관이 스스로의 경험을 후세대와 나누기 위한 물리적 토대라면 호명은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이념적 매개이다. 대전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정체성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는 것, 대전학 연구의 잊지 말아야 할 지향점이다.

## 참고문헌

- 강준만 (2001),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 권선정 외(2009). 원도심의 장소성과 근대경관읽기.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 김민수(2009). 『한국 도시디자인탐사』, 그린비.
- 대전시민아카데미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2011). 『대전 근현대사 인문 기행』, 월간토마토.
- 염인섭(2018). 『대전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방안』, 대전세종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임병조 (2009),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 홍성신문에 투영된 내포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1호 2009: 89-104
- 임석재(2003). 『현대 건축과 뉴 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관연 (2009), “근대적 켈르카니발의 탄생과 지역 정체성 형성과정”, 『역사문화연구』 2009, vol., no.34: 389-418.
- 조성남(2018). 은행동 이야기.
- 한상헌 외(2019). 대전 도시경관의 도시정체성 확보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Lakoff, G (2001), Thinking Points: Communicatio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s, 나익주 옮김 (2007), 『프레임 전쟁』, 창비.
- Relph, E (2005).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Sturken, M, Cartwright, L (2001), Practices of Looking: A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윤태진 · 허현주 · 문경원 옮김(2006), 『영상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대덕특구 8개 지구로 개발...첨단도시로 ‘대변신’”, <헬로디디> 2005.8.22.
- “일제는 ‘한밭’ 지명을 대전과 태전을 혼용했다”, <홍주일보> 2015.6.19.

기 획 특 집 0 4

# 장소성과 장소감을 통한 세종의 정체성 찾기

임동욱 / 미디어에이터스 대표

## 1 — 서론 : 얽히고 설킨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말해 보라” 하면 일반적으로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6개의 ‘광역시’와 1개의 ‘특별시’를 떠올리게 된다. 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며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가리킨다. 광역시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이며 특별시는 서울이다. 여기에 한 곳을 추가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지정된 세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미지로 무엇이 떠오르는가?”하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신도시, 아파트, 혁신, 정부 청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출범할 당시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비도시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새로 지어졌기에 행정구역은 1개 ‘동’을 제외하면 1개의 ‘읍’과 9개의 ‘면’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도시 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2014년에는 유일한 행정동인 한솔동에서 도담동이 분동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도담동에서 각각 아름동과 증촌동이 분동했다. 2017년에는 고운동, 보람동, 새롭동이 생기면서 10만 명으로 출발했던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도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로 2021년까지 대평동, 소담동, 다정동, 해밀동, 반곡동이 기존 행정동에서 분동하거나 리 지역을 편입하면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는 12행정동과 23법정동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읍 9면 체제는 여전하다. 심지어 전체 465km<sup>2</sup>인 세종특별자치시 면적의 90% 이상이 여전히 읍면 지역에 속해 있다. 행정구역은 ‘시’인데 대부분이 비시가화 지역에 속한 상황이다. 2016년에는 시가화 지역인 ‘행복도시’의 주변에 위치한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등 6개 면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했고 2019년에는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과 초치원읍까지 포함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도시지역 전체를 성장관리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그만큼 개발을 원하는 압력이 거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 구역과 비도시 구역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통일된 이미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주민들의 출신도 제각기 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인구의 44%는 대전에서 거취를 옮겼고, 23%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주해 왔다. 충북과 충남 지역에서 이사를 온 사람은 각각 9%였고, 나머지 13%는 그 밖의 전국에서 이주해 왔다. 대전, 충남, 충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다고 해도 이른바 ‘충청도 사람’은 62%밖에 되지 않는다. 충청권 대 비충청권으로 정체성을 파악하려 해도 6대4의 분열이 일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일한 행정구역을 특별자치시로 독립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의 구역을 조금씩 편입시켜 완성했기에 역사적 연속성에도 빈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부분 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을 기반으로 하지만 76km<sup>2</sup>의 면적은 공주시 장기면, 의당면, 반포면에서 분리되어 장군면과 금남면이 되었고 27km<sup>2</sup>는 청주시 부용면에서 분리되어 부강면이 되었다. 공주시와 연기군은 충청남도에 속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도 충남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강면을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하면서 충청북도와 연결점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분리된 것은 1896년 고종 때다. 120년 넘게 서로 다른 소속으로 살아왔기에 동일한 정체성으로 뭉뚱그리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지역정체성은 관광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도시 브랜드는 일관된 콘셉트를 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할 때 힘을 발휘한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미지를 홍보해야 하는지 확정하지 못한다면 사회 구성원 간의 응집력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처한 과거와 현재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정체성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I — 지역정체성으로 파악해본 세종특별자치시

### 01 지역의 정의와 개념

지리학에서는 ‘지역’을 “지점보다는 크고 지구보다는 작은 모든 지표면 단위”로 정의한다. 지역은 구성단위의 크기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글에서는 지역은 국가보다 작은 단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도, 군, 시 등의 행정단위와 영남·호남, 영동·영서, 수도권 등 지형과 생활권을 기준으로 묶인 국가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이는 지역주의, 지역화, 지역정체성 등의 논의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이다.

지역 개념에 대한 해석은 시대, 장소,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왔다. 1947년 미국지리학협회(AAG) 산하의 지역연구위원회는 지역을 구성요소의 분포와 수행 기능에 따라 ‘등질지역(uniform region)’과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으로 구분했다. 등질지역은 사람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을 가리키며 공통의 기후,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로 이루어진다. 기능지역은 결절점이나 초점이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을 가리키며 중심지와 외곽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역정체성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특정 장소에 대한 비공식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한 ‘인지지역(cognitive region)’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존재한다고 믿는 지역 개념으로서, 특정 위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기반으로 ‘심상지도(mental map)’를 그릴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지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역사, 종교 등 인간에게 심상을 유발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대립’이나 외국의 ‘자치권 투쟁’에서 사용되는 지역이 인지지역의 대표적인 예다.

인지지역 개념을 지역에 대한 정의로 채택할 경우, 정치·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계, 제도적 체계, 이데올로기, 상징, 주체성, 정체성 등에 따라 지역 개념이 다양해진다. 인지지역은 수치나 물리적 형태를 근거로 설정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고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주관적 용소들이 작용하는 주관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지역 개념에서는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빼놓고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보편화, 지방자치의 보급, 세계화의 확산, 교통수단의 발달 등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정체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1〉 지역의 구분 방법

구분	등질지역	기능지역	인지지역
의미	지역을 기후, 언어, 문화 등 공통점으로 파악	지역을 중심지와 외곽으로 구분해 파악	지역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파악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도라는 공통점은 60%에 불과	북부의 읍면 지역은 행복도시보다 다른 지자체와 근접	세종 시민이라는 자부심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의 지역 개념을 적용해 봐도 등질지역이나 기능지역보다는 인지지역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질지역은 지역 내의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충청도 출신이라는 특성을 가진 거주민은 62%로 전체의 2/3도 되지 않는다. 기능지역에서는 중심지가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가지화 지역인 행복도시를 중심지로 설정할 때 북쪽의 전의면과 전동면은 오히려 천안 생활



권에 속해 있으며, 조치원읍도 행복도시와 청주의 거리가 비슷한 위치다. 반면에 인지지역 개념으로 살펴보면 세종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결과’에서 주민 중 74%가 세종특별자치시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는 전국 유일의 인구 자연증가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구성원을 빼앗길까 봐 ‘블랙홀’이라는 우려를 보이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위가 파악되고 있다.

## 02 지역이 가진 정체성과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

인지지역 개념에서 논의되는 특징을 ‘정체성(identity)’으로 여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정체성은 내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차별되는 특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타자’에 의한 인식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면서 구성되는 것이다. 정체성은 개인적인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인 ‘지역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이라는 개념은 내면적으로 동일함을 유지하는 내적 단일성 그리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 정의되기에, 다양한 질적 정체성을 동일한 나 자신의 것으로 통합해야만 내적 동일성을 갖춘 자아 정체성이 완성된다. 결국 자기 정체성은 지역 정체성과 연결 지어 확장할 때 올바르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체성은 공식적으로는 ‘사회’라는 타자와 통시적으로는 ‘과거’라는 타자와 대비됨으로써 존재성을 획득한다. 정체성은 기억과 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명확해지는데, 특히 망각은 과거의 체험이나 대상을 현재와 분리함으로써 과거라는 시간과의 거리감을 분명히 한다. 결국 개인은 “내가 포기한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의 타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나의 지금의 의식 속에 내면화할 수 있게” 되며, 소속 집단의 망각과 기억의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공식적인 귀속감과 통시적인 연속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정한 공간의 범주에서 형성되는 지역정체성도 마찬가지다. 지역정체성은 타인과 구분되는 ‘우리’를 특정 장소에 결합하는 영토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나와 남을 구분 짓는 ‘경계’에 의해 구체화할 수 있다. 경계는 사회·문화적인 과정을 통해 설정된 구성물이자 권력의 관계에 의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도안, 깃발, 유니폼, 기념물, 문학, 음악, 민속, 낙서, 유적, 경관 등 지역정체성을 상징하는 재료들도 경계의 일종이다. 지역정체성은 특정 지역과 그 지역에 속한 인구집단을 결속시키며, 지역의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다 넓은 사회 공간적 체계 내의 자원과 권력에 대한 경쟁에서 지역이 문화적·경제적 매개체로 작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사람이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적인 동일성이 결여된다면 해당 지역의 정체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지역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질적 정체성을 아우름으로써 정체성을 완성할 때만이 진정한 지역정체성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세종의 구성원들은 복합적이면서 다층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행복도시라는 시가화 지역과 그 바깥쪽의 읍면 단위 농촌 지역의 인프라 차이가 극심하다. 중심지인 행복도시는 타지역 출신의 이주민이 대부분인데 비시가화 지역은 원주민이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혁신과 전통이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낳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구성원 측면에서 살펴봐도 통일된 정체성을 설정하는 데 난관이 존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충청도의 지위를 부여하려 해도 1/3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서 유입되었다. 게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전도 광역시 승격 이후로는 충청도로서의 특징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떠한 전략으로 지역정체성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

### III — 장소정체성으로 살펴본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공간

#### 01 공간에서 장소로의 이행

동일한 위치라 해도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개념을 구분한다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공간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인 반면, 장소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가지며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독특한 것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장소는 지리적인 위치에 공간적인 경험이 축적된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공원이나 인도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산책을 나온 사람에게는 유희의 ‘공간’이고 소통의 ‘공간’이지만,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는 추억의 ‘장소’이다. 인간은 장소에 대해 나름의 느낌을 가진다. 특정 장소를 독특하게 만드는 그곳만의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고향의 마을이나 휴양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포근함, 안락함 등을 느끼는 한 것도 장소에 대한 느낌에 속한다.

공간이 장소로 변화하려면 추가의 요소가 필요하다. 장소를 구성하는 3요소로 ‘위치(location)’, ‘현장(locale)’, ‘장소감(sense of place)’을 꼽을 수 있다. 위치라는 것은 ‘역세권’이나 ‘2층’처럼 공간 내 객관적인 지점을 의미한다. 현장은 ‘집’이나 ‘강남’처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사용되는 장소적 맥락을 포함한다. 장소감은 특정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흔적이다. 그러므로 장소는 ‘아들이 태어난 병원’, ‘신혼여행지’처럼 개인적 정체성이 공간적 정체성과 맞물려 만들어진 개념이다.

종합하면 ‘공간’은 물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실체로, ‘장소’는 공간에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가치를 투영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환경을 과학적·물질적인 측량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활동·문화 등 추상적 경험 요소까지 덧붙인 인간적·정서적 평가로 전환하는 태도이다.

인간은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공간을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상상력은 특정 공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독일의 현상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의 지적처럼, 공간과 시간은 실재적 세계에서 갖가지 실체와 속성이 출현하도록 돕는 일반적이고 범주적인 제약에 불과하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거주환경을 객관적인 ‘공간’으로 판단하기 보다 주관적인 ‘장소’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거주민들 스스로 추억을 쌓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만 있다면 동일한 도시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공간 중에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는 얼마나 될지 반문해 볼 만하다. 읍면 지역과 달리 행복도시 지역은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역사를 가졌기에 시민들이 ‘장소’라고 부를 만한 곳이 많지 않다. 특히나 좋은 추억을 경험했거나 마음 편히 머물 만큼 아늑한 장소는 공연장이나 공원처럼 공적인 공간이거나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 대부분이다. 많은 시민의 주거 배경이 되는 아파트는 정성 들여 조경을 조성하고 인근의 자연녹지와 연결해 놓았지만, 그중에 거주민이 직접 가꾸고 꾸밀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개인적인 경험을 할 만한 사적인 장소로 발전하기가 어렵다. 모든 부분을 시가 개입해서 완성하는 ‘빡빡한 도시’의 방식보다는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손길이 닿아서 변화가 가능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일종의 ‘느슨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 02 장소성에서 장소감으로의 이행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중에서도 사람의 정서를 중심에 두는 인문지리학(humanistic geography) 연구자다. 그는 장소를 행위와 의도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건과 행위는 장소의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인간의 의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의도성(intentionality)’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도시 연구에서는 ‘장소성(placeness)’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렐프는 정서적인 개념을 추가했다. 장소성을 불러일으키는 기본 요소인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 ‘인간의 활동(activities)’, ‘부여된 의미(meanings)’의 3가지가 서로 변증법적으로 연계되면서 장소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들 요소를 감싸 안아서 하나로 연결해 주는 정서를 ‘장소감(sense of place)’이라 부를 수 있으며 특정 장소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

장소감은 독일어 ‘오르트가이스트(Ortgeist)’ 또는 라틴어 ‘게니우스 로키(genius loci)’와 유사한 개념이다. 오르트가이스트는 ‘시대 정신(Zeitgeist)’과 짝을 이루어 ‘장소 정신’으로 번역되는 표현으로 특정한 장소(Ort)에 일종의 영혼(geist)이 깃들어 있다는 개념이다. 로마 시대에 민간신앙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진 장소의(loci) 정령(genius)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특정 장소가 가진 분위기를 지칭하는데 쓰이곤 했다. 이것은 장소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정체성(identity)’이라는 관점을 대입해야 하는 이유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은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이고, 장소는 곧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장소성에서 정체성 개념을 접목하면 ‘장소정체성(identity of place)’이 탄생하게 된다. 장소정체성은 공적인 장소가 가진 ‘장소성’에서 유래된 ‘장소 자체의 정체성(identity of a place)’ 그리고 사적인 장소가 유발하는 ‘장소감’에서 유래된 ‘장소에 대한 정체성(identity with a pla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적인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가진 경우가 많다. 광장과 골목은 물리적인 형태도 다르고 그 기능이 주는 느낌도 상이하다. 특정한 인물이 태어난 곳이나 특이한 자연현상이 나타난 곳은 평범한 공간보다 더 많은 시선을 끈다. 특히 권력에 의해 조성된 공공장소들은 뚜렷하고 기념비적인 물리적 특징을 통해 높은 상징성을 표출한다. 이처럼 물리적인 공간에 부여된 공적인 상징성은 ‘장소성(placeness)’으로 부를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적인 장소들은 물리적 형태가 아닌 누군가의 심상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공간이라도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카페에서도 자신이 또는 지인이 자주 앉던 좌석은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사적인 장소가 가진 장소성 즉 ‘장소감(sense of place)’이다.

〈그림 1〉 벨프의 장소정체성 구분



대부분 연구자가 주장하는 ‘장소감’은 벨프의 장소성과 장소감을 통칭해서 부르는 개념으로 보인다. 공공장소가 내뿜는 물리적 상징성으로서의 장소성은 ‘장소 자체의 정체성’으로 부를 수 있고, 사적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2가지의 정체성이 일치하는 장소가 있다면 ‘진정성(authenticity)’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장소성과 장소감이 일치하지 않는 장소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장소성(placelessness)’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행복도시는 완전히 새로 지어진 신도시다.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공간이 공적인 차원에서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다. ‘도시 전체가 건축박물관’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계된 공간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장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장소성’만을 유도할 만하다. 여기에 덧붙여 시민들에게 ‘장소감’을 만들어줄 단계가 되었다. 특정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서적인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다시 말해 장소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시민들의 정체성이 공간 본래의 장소성과 연결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진정성 있는 도시로 불리게 될 것이다. 비시가화 지역인 읍면 단위는 평생을 거주한 자신의 동네를 ‘장소’로 여기는 주민들이 많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

## IV

## 결론 : 세종이라는 장소의 외부에서 내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장소정체성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의 구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의미의 차이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장소 개념의 본질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내부적 경험에 존재한다. 어떤 장소의 내부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소속된다는 것이자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내부로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성(outsideness)'과 '내부성(insideness)'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인류학자 버거(Peter Berger)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화에 스스로 동화되는 단계를 3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첫째는 '행동적(behavioural)'인 수준으로, 냉정한 관찰자로 남아 있으면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둘째는 '공감적(empathetic)'인 수준으로, 그 문화의 완전한 구성원이 아니라는 의식을 유지한 채로 행동적·감성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인지적(cognitive)'인 수준으로, 문화인류학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원주민이 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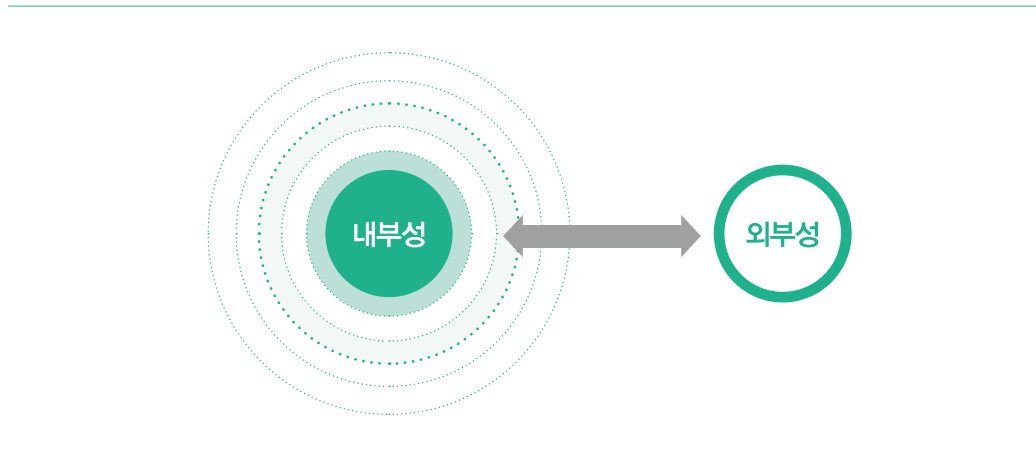
렐프는 이를 바탕으로 특정 장소에 빠져드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내부성과 외부성을 총 8가지 수준으로 세분화했다. 총 8가지 수준으로 세분화했다. 특정 인물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상태는 '외부성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 지역을 방문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면 '내부성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외부성의 제일 바깥에는 '① 실존적 외부성'이 위치하며 소속감의 상실이자 자발적인 무관심 단계를 가리킨다. 여기서 장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내부성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② 객관적 외부성' 단계가 된다. 다만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에 여전히 외부성에 속해 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해당 장소를 인간 활동을 위한 배경이나 무대 등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해서 장소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③ 부수적 외부성' 단계로 나아간다.

이와 짝을 맞춰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 '내부성'도 세분화할 수 있다. '④ 대리적 내부성' 단계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마음에 남는 관계 맺음을 경험한다. 예술이나 문화콘텐츠를 통한 간접 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⑤ 행동적 내부성'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 장소를 경험하는 단계로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등 주위 환경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⑥ 부수적 내부성'은 특정 장소에 속함으로써 내부성을 획득했지만 아직 그 장소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하는 단계다. 여기서 발전하면 '⑦ 감정이입적 내부성'이 된다. 해당 장소에 감성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단계다. 지역공동체와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소의 내부성 깊은 곳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⑧ 실존적 내부성'은 장소에 완전하게 빠져드는 단계로서, 해당 장소에 대한 소속감이 깊어져서 완전한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8단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내부성과 외부성을 양쪽 기준으로 두고 그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또는 내부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림 2〉 장소정체성의 이항대립적 구분



〈그림 3〉 장소정체성의 동심원적 구분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구성원들이 내부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토포필리아(topophilia)’ 즉 지역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동심원 안쪽을 향해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성원은 거주민으로서의 시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의 인구 구성원을 ‘정주 인구’, ‘체류 인구’, ‘방문인구’로 나눈다.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주 인구, 불일이 있어 잠깐 들르는 사람들을 방문인구라 한다면 체류 인구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1박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생산·교육 등의 행위를 영위하는 인구를 가리킨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체류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이들을 포함해 지역정체성을 세밀히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장소정체성의 단계적 구분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법이 가능할 것이다. 동심원의 가장 바깥쪽인 ① ‘실존적 외부성’ 단계에는 아직 특별히 세종 지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외지인이 위치해



있다. 관광을 계획하거나 방문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보이게 되면 ② ‘객관적 외부성’ 단계에 진입한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순간 ③ ‘부수적 외부성’ 단계로 접어든다. 그러나 아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호불호를 내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해진다. 직접 방문은 하지 않더라도 관련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얻고 해당 지역에 호감을 느낄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내부성에 발을 들여놓는 ④ ‘대리적 내부성’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직접 방문하고 도시에 대해 거주민과 유사한 호감을 느끼게 되면 ⑤ ‘행동적 내부성’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물론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한다 해도 지역정체성에 공감하지 못하면 ⑥ ‘부수적 내부성’ 단계에 머물게 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가 담긴 스토리에 공감하고 지역정체성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⑦ ‘감정이입적 내부성’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다. 가장 안쪽인 ⑧ ‘실존적 내부성’ 단계에는 지역 애착을 기반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거주민들이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세종을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작품을 홍보함으로써 아직 세종시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을 ‘방문인구’로 끌어들이고, 이들이 세종에서 일자리나 볼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체류인구’가 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종시가 가진 매력을 발산해서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는 세종시와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자신만의 ‘장소’를 설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세종시 중에서 특히 행복도시 구역은 인프라와 콘텐츠 모두가 관 주도으로 완벽하게 짜여져서 일반인의 개입과 활용의 여지가 적은 편이다. 이를 좀 더 열린 형태로 전환시켜 시민 참여형 또는 방문객 참여형 요소들을 늘려가는 전략을 추천한다. 정주 인구라 해도 지역 애착을 강화해 내부성에 공감하고 동화되도록 하는 전략도 함께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부터 반복해 오던 단순한 방식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법을 찾기 어렵다. 이에 공적인 차원에서의 행정 또한 수직적 통치(government)에서 수평적 협치(governance)로 변화하는 추세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도시와 농촌, 이주민과 원주민, 공간과 장소,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면서 또한 분리된 도시는 그에 적합한 다차원적 해법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또 다른 이름인 ‘복합도시’에 이미 문제의식이 내재하여 있는 만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에서 그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해답을 찾아나갈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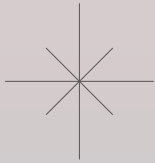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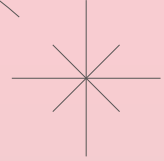


## 참고문헌

---

- 국토연구원(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2016), 고시 제2016-111호.
- 세종특별자치시(2019), 공고 제2019-2503호.
- 세종포스트(2016), 세종특별자치시 이주민,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3>
- 임병조(2010),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 내포 지역 연구>, 한울.
-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전종한 · 서민철 · 장의선 · 박승규(2012),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 통계청(2023),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
- Rubenstein, James M.(2012), 『세계의 문화경관 - 현대인문지리학』, 정수열 외 옮김, 시그마프레스.
- Angehrn, Emil(1985), *Geschichte und Identität*, Berlin: Walter de Gruyter.
- Bauman, Zygmunt(2000), Identity in the globalising world, <Social Anthropology>, 9(2).
- Berger, Peter(1971), *A Rumour of Angels*, Harmondsworth: Pelican Books.
- Erikson, Erik(1959), Identity and the life-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 Gregory, Derek(2000), Region and regional Geography,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 Heidegger, Martin(1969), *Identity and Difference*, New York: Harper and Row.
- Marcel, Gabriel(1949), *Being and Having: an existentialist diary*, Dacre Press.
-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DAEJEON SEJONG FORUM



정담(情談)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 대전·세종의 재발견

ISSUE & TALK

/ 조혜진  
독립연구자

/ 김사론  
독립연구자

/ 임서연  
독립연구자

대전·세종 STORY

/ 장석춘  
문화활동가 · 시인

/ 최원석  
인문학협동조합 그리고 이사

대전·세종 FOCUS IN

/ 김한솔  
로컬42협동조합 이사장

/ 최광  
소설가

# 우리의 지역을 탐구하는 이유

조혜진 / 독립연구자

참  
여  
자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원 월간토마토 대표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소장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도시는 언제나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모습과 성격을 달리해 왔다. 1905년 한발으로 불렸던 작은 마을에 경부선이 연결되면서 지금의 대전으로 향하는 발전이 시작되었고, 2012년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장기면·의당면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가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수도의 역할을 부여받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두 지역은 100년과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와 머물기보다는 거쳐 가는 장소로서의 인상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성격과 특징을 함께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은 거주민의 인식과 삶의 변화에 따라 얼굴을 달리한다. 우리 삶의 변화와 발전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우리의 기쁨과 아픔이 지역의 감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 두 도시에 정착해 있는 180만 인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역동성은 어떻게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우리 지역을 형성해 왔을까. 지역학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전과 세종의 얼굴을 살펴보고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방향성을 살펴본다.



## 대전과 세종, 새롭게 태어난 근현대의 도시에 시선을 두다

**이재민** 세 분 모두 '대전세종지역학연구포럼'에서 활동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대전과 세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관련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용상** 정체성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역학도 역사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 찾아가고 또 그것은 변할 수 있다는 열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2007년에 서울에서 대전의 우송대학교로 왔어요. 대전은 철도가 만든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1905년에 경부선이 만든 이 도시의 얼굴이 뭘까 하고 관심이 생겨서 계속 보게 됐고요. 학생들과 함께 이때의 기록을 다 찍어왔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 계기는 한 박사님과의 인연이에요. 5~6년 전에 원광대학교에 발표하러 갔는데 저희 세션 바로 다음이 전국지역학센터였어요. 그런데 대전이 없어요. (웃음) 그곳에서 서울학연구소의 이익주 교수님을 뵈었는데 왜 대전이 없냐고 그랬더니 “대전은 없어요. 안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에 돌아와 한 박사님과 다른 친한 몇 분께 대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대전연구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5년이 되었습니다. 스물여덟 명 정도의 회원이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정년이 3년 정도 남았는데 제 전공인 교통, 철도를 통해서 본 대전의 모습을 계속 그리는 작업을 제 나름대로 해나가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요. 그동안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보아왔다면 최근에는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대전의 150만 인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일** 저는 세종이 고향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10년이 지났고 개발이 15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이 이전부터 가져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져가야 할 것에 대해서요. 세종특별자치시도 신도시지만 대전도 알고 보면 100년이 넘지 않은 신도시예요. 작년에 이 박사님과 세종에서 문화도시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대전도 세종도 문화도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정체성 찾기가 자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대전·세종을 신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미래적으로 대전·세종의 발전과 비전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저는 15년 전쯤부터 지역의 콘텐츠를 찾아 출판이나 잡지의 형태로 소개하는 일을 계속 해 왔어요. 시작할 당시에는 지역콘텐츠라는 개념이 없었죠. 서울이나 경기권 중심의 콘텐츠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라 지역에서 영위되고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무시되어도 되는 건가 하는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차곡차곡 정리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 기록을 해 두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들여다보기를 시작했고요. 특별하게 정의된 분야가 없다 보니 다양하게 본 거죠. 그때그때 열리는 이벤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오래된 마을을 기록해두는 작업도 미흡하나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기록하는 일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 대전과 세종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정체성

**이재민** 그동안 대전과 세종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대전과 세종의 관계 속에서 각 도시의 지역정체성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용상** 교통과 지리적인 측면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신문을 검색할 기회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1972년도 동아일보 기사에 '파라구아에 남미의 대전정거장이 있다'라는 타이틀의 사실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남미에 대전정거장이 있지? 해서 쪽 읽었더니 우리나라의 이민이 남미의 브라질과 파라구아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 파라구아에 있었던 만 명에서 400만명 남고 나머지 9,600명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으로 다 갔대요. 그래서 제목을 남미 파라구아에 있는 대전정거장이다 라고 한 거죠. 왔다가 그냥 다 갔으니까요. 더 찾아보니 대전에도 대전역의 대전블루스, 잠깐 이별하는 모습, 가락국수도 호남선으로 가고요. 결국은 스쳐가지는 것도 있고 성심당 사장님처럼 스쳐가지만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 나름대로 대전의 정체성을 말해 보자면 역시 지리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바이오도 반도체도 있지만 모빌리티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대전은 모빌리티 때문에 생긴 도시고 모빌리티 때문에 국가의 중심이 되었고요.

**임재일** 대전과 세종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신도시들이죠. 두 도시 모두 철도로 연결이 되어서 교통으로 큰 도시예요. 100년 전에는 사실 교통의 흐름이 무더서 부여·공주·합강까지 금강 자체가 교통이었고요. 동·서와 남·북의 흐름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통의 흐름이 결국 경제를 살려주잖아요. 물의 흐름과 철도의 흐름을 활용하여 경제에서 문화를 찾아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원** 작년에 기회가 있어서 세종에 자주 갔었어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보니 대전과 점점 비슷해지는데? 싶더라고요. 뭔가 많고 어수선했는데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기존 연기군 지역의 것들과 공주 지역의 것들이 세종 내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세종과 대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메가폴리스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대전은 근대 이후로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왔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휘말려서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도시의 유사성이 대전과 세종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을 알고 두 도시가 잘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학'이라는 근원적 질문에 다가가기

**임재민** 다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임재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서와 남·북의 흐름은 지역학에서 한 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강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이고요. 저희가 지역학연구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늘리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지역학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지역학 연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재일** 이해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30퍼센트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반이 되고, 그다음 2~30퍼센트는 현재에 대한 파악과 현재 도시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나머지 4~50퍼센트는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야 지역학에 보상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 도시의 질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상** 지역학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도 필요하고 고증도 필요하죠. 대전을 교류사나 관계사적인 측면에서 더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것 자체만 보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청도, 전라도와의 교류, 경상도와의 교류, 이북과의 교류 등 그런 교류사가 어떻게 현재에 관계사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보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측면이 필요해요. 교류사, 관계사, 비교사적 측면으로 더 들어가면 대전학, 지역학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새로운 관계와 만남의 장소, 지역학

**이재민** 말씀을 들으면서 근원적 질문에 대한 근원적이고 실용적인 답 모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학연구센터가 이제 2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어떤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상** 지역학연구센터는 계속 논의해 왔던 것처럼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대학·지역의 연구 단체·대전광역시를 아우르는 플랫폼이자 소통과 개방의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포럼과 학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는 근현대사 박물관에 관한 부분이에요. 부산과 대구에 가면 근현대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물관이 없으면 역사가 정립되지 않아요. 부산이나 군산이 5~600만 관광도시가 된 이유는 근현대사 자료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장기 과제로 대전에 근현대사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의제해 보면 어떨까요.

**임재일** 센터가 지역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센터장님께서 연구 방향과 논의 정도까지가 전문가의 역할이고 그 뒤부터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이 가능하게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을 연구하는 단체가 활동가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용상 교수님 말씀대로, 조선시대 이전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드라마 정도로만 바라보지 우리의 삶을 직접 끌어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근대 문화와 콘텐츠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각 지역 현장에서의 복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박물관이 아주 중요하겠죠. 동의합니다.

**이용원** 개인적으로는 분류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역학에 포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학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등을 분류해서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지역학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세부적인 연구 작업과 결과물을 갈무리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요.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의 표준을 잡아나가는 선도 역할로 하면 어떨까요. 인천에 가면 인천의 분류표, 대전은 대전의 분류표처럼 정리가 되면 지역학이 무엇이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웃음)



## 사람과 역사를 통해 보는 지역, 함께 그리는 미래

**이재민** 지역학에 관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각 지역에 적합한, 적절한, 적용할 수 있는 분류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플랫폼 역할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급히 해야 할 과제에 이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탐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용원** 지역학에 항상 따라붙는 게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정체성은 절대로 정체되어 있는 영역은 또 아니죠. 매년, 매번 변하는 영역이죠. 대전광역시도 공식적으로 표방한 정체성은 세계 일류 경제도시인데, 일단은 표방한 정체성이죠. 이러한 표어들은 행정지도자나 개인적 관심 또는 판단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나 근현대의 특징 또는 정체성을 연구하고 규정하고 이론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업을 토대로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확보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가까지도 연계하는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연구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제 도시 표어를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도시가 표방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탐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재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의 공

통 질서를 연구하고 그 공동체성에서 충청권의 정체성을 만들어 메가시티로 가는 어떤 근거를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흐름에 따라 경제든 문화든 하나로 묶어서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도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상** 계속 발전하는 측면에서 자료 아카이브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대전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만들어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카이브 작업을 지속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물을 볼 때 사람을 통해서 보니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보이고 스토리가 연결되더라고요. 유물사 또는 인물사. 사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연결되면 우리가 크게만 생각했던 스토리에서 아주 미시적인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을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학이라서 미국과 일본을 잠깐 다녀왔어요. 다저스 돔을 갔는데 야구장도 박물관으로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야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곳이었던 거죠. 모든 시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구장을 만들면 야구장만 생각하지 박물관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 일본의 기록관들을 다니다 보니 역시 기록이 참 중요하고, 또 그 스토리가 연결되더라고요. 앞으로 대전에서도 모든 시설을 볼 때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대전역도 그렇고 대전의 모든 것들을 문화유산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대전세종연구원이 앞으로 모든 시설을 그런 철학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다양한 주체가 모여 더 큰 가치를 꿈꾸다

**이재민** 사실 연구를 계속하더라도 시민들이 모르면 연구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시민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플랫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으로 우리 연구센터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주체, 그리고 협력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용상** 지금 대학 예산이 지자체로 넘어왔어요.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대학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썼는데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학 특별회계를 지자체로 넘기면서 3조가 투입됐어요. 그 사업 중 하나로 예산의 10퍼센트를 무조건 지역과의 협업에 써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대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다음으로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국제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류사와 근대사를 보면 다른 한쪽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에서 보면 대전은 중국, 일본, 베를린까지 가는 열차들이 정차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런 시야를 가지고 봐야 대전이 세계경제도시로 보이는 거죠. 그런 이야기 없이 반도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협력의 주체로 대학과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재일**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설청에도 문화담당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철거할 때 기록을 꽤 꼼꼼히 했어요. 기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향토사연구소가 있지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역사연구원과 연계해서 아카이브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용원** 저는 두 가지 영역에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는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은 시대에 따라 역사가 깊죠. 최근에 선도적인 문화원들은 그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 작업에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대덕문화원은 아주 중추적으로 잘 치고 나가고 있고요. 문화원 간에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 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마을이에요. 청주는 문화도시 콘셉트 자체가 기록 도시여서 마을기록관을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기록관이 잘 되는 곳들도 있고 자리를 못 잡은 곳들도 있지만 분명히 미래가 기대되는 일들을 잘해 나가고 있어요. 향후에 마을사업은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과 마을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작업, 교육, 인력양성의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 안에서의 교류, 지역을 통한 교류

**이재민** 지역학연구센터의 단·중·장기적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소회를 간략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용상** 많은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전지역학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시작이었죠. 대전의 인물, 리더스피릿 기획총서라는 성과물도 나왔고요. 세종도 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작지만 알차게 한 것 같아요. 포럼도 그 일환이고요.

**임재일** 처음에 지역학이 들어오면서 관심도 생기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포럼에서 현장 위주로 자주 돌아다녔던 것, 논산도 갔었고 대청댐도 가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

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현장 사람들과 더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용원** 개인적으로 다양한 분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인식의 확장도 가져올 수 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주최 측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오프라인으로 꼭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거나 접할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

**이용원** 꾸준히 성과물을 내고 대화의 기회를 가지는 것, 현장 사람들과의 만남 모두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대전 세종지역학연구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우리 연구원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상** 힘든 상황이죠. 사실은, 역사나 지역학은 메인이 아닌데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이런 사업은 DNA로 하는 사업이죠. 우리 삶의, 부모님들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마음이기니까요. 하나 제안을 하자면, 군산에서 군산선을 한 번 조명해달라고 하셔서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군산선과 관련한 기록 자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아이디어를 내보래요. 그래서 제 책을 200권 기증했어요. 제 철도 책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정년을 맞이하게 되니까 제 책이 많잖아요. 드렸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교수님들이 다 그래요. 엄청나게 좋은 책이 많아요. 교수님들 모두 그 책에 애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 곳이 없어요. 결국 헌책방에 가거나 후배들에게 주는데 그것도 여의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마을 사업과 한다면 대학교수님들 호응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 기여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회와 현재의 좋은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요.

**임재일** 한 4년 전에 공주에서 근대문화유산인 구 공주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공문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의원장을 맡았어요. 공주 대학과 각 대학의 교수들을 만났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책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자 했죠. 병실이니까 칸이 많잖아요. 칸마다 어느 교수님 서재. 그분들을 활용해서 공주의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도서관이 하나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안했지만 결국 감영 자리라고 철거하는 바람에 잘되지 않았어요. 아쉬웠죠. 제가 자꾸 메가시티 얘기를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대 광역권 발전 협의회라고 해서 그런 논의나 방향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시가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으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잘 홍보되어서 지역의 활동가와 전문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용원** 당연히 예산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주체 분들이 이곳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할 일을 해가면서 활동하시다 보니 애정이 있고 역량이 있어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도시가 개발 중심으로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지금까지 해 왔다면 이제는 지역학이라는 얘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갔다는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의 격, 품격, 수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관련 예산과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던진 질문과 그 품격에 비해 예산이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맞는 예산과 본

격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나 내년쯤에는 센터를 어떻게 출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재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 소통을 통한 공유, 소통을 통한 연결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지요. 더욱이 대전과 세종의 지리적인 위치, 역사적인 사명 같은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마을과 대학을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계속 주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집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청년이 생각하는 대전세종의 지역정체성

과거의 능선을 따라  
푸른 새벽을 심다

김사론 / 독립연구자



김지명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박진석 진DoL 대표  
/ 로컬크리에이터



임유진 페이즈 Faze  
(Female Gaze) 소속 활동가



주성빈  
(주)PAL문화유신센터 디렉터



김성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주임

지역정체성은 입체적인 개념이다. 생활권으로 규정하느냐, 형성 시기에 따라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하느냐,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단위로 나누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며 어떤 연령층과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시야를 통해 보는지, 어떤 배경을 지닌 구성원이 지역을 통해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지에 따라 서로 달리 표현된다.

내부로부터 오는 시선이 반드시 호의적인 것은 아니며,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만 알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학은 우리가 사는 지역 테두리에 갇혀 있는 학문이 아니다. 각 지역에서 연구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장단점, 개선점을 공유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을 재발견하고 타지역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전·세종 지역 4명의 청년에게 ‘지역학’에 대한 화두를 던져 보았다.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대전·세종 지역은 삶의 터전이다. 과연 대전과 세종은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며, 어떤 질문을 던질까?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고 정의하는 ‘지역정체성’이란 무엇일까? 문답을 주고받으며 각자 품에 안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스스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탐구했다. 다양한 시선과 욕구가 충돌하고 의견이 모여 이들을 통해 우리 지역에 펼쳐질 새로운 지형을 기대한다.

## 대전·세종에 깃들이다

나는 왜, 어떻게 대전·세종 시민이 되었나

**주성빈** 고고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 PAL 문화유산센터(이하 PAL) 디렉터로 일하는 주성빈이라고 합니다. PAL은 박물관의 힘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박물관이 하는 연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재 복원만 했었는데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최근 들어서는 박물관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설치 포함해서 전시를 기획한다든지, 문화재를 복원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세종에 정착한 사례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종로 쪽에서 지내다 경기도 구리로 이사 했지만 쪽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다가 대학을 계기로 세종에 온 이래 계속 적을 두고 지금은 조치원에 가까운 원도심에 삽니다.

**김성주** 태어난 도시 세종에서 활동하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 연기군이었던 시절에 조치원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시절을 다 보냈어요. 대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게 잠깐 작은 마을을 벗어난 계기였네요. 세종 신도심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예술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세종지역 예술가를 지원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원도심에 있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혁신창업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다 보니 다시 제가 태어난 도시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애착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박진석** 저는 태어난 장소부터 지금 사는 데까지 위치가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출생부터 현재까지 반경 1km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다닌 초등학교를 제가 대를 이어 다니고, 자양동, 가양동, 소제동 일대에서 쪽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제가 가장 잘한 건 좋아하는 여행을 일로 삼은 거예요. 2019년 창업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여행자를 맞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영감(insight)을 발견해서 콘텐츠로 제작합니다.

**임유진** 여성 창작자들이 협업하고 교류하는 프로젝트 기반 단체 페이즈 Faze(Female Gaze)라는 그룹에서 활동 중인 임유진입니다. 덧붙여 피스어스(Peace Earth)라는 대전 에코페미니즘 커뮤니티도 꾸려 나가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유진솔'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지역을 기록하는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여성 장애인 연대를 주제로 음악을 제작하는 등 가치관을 담은 노래를 만들고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스무 살 대학 입학의 계기로 처음 대전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중간에 잠시 금산, 옥천 등 대전 인근 지역에서 로컬 콘텐츠 기획하는 일을 하느라 도합 4년 정도 대전을 떠나 있긴 했지만 2년 전에 다시 돌아와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 풍경으로 읽는 지역학 환경에서 읽는 지역정체성

**김지영** 도시 풍경이나 시스템 측면에서도 지역학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주성빈님은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타지역, 특별히 수도권 출신이신데 대전·세종 지역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주성빈** 조치원 이주 초기, 2018~19년에는 보통 학생이 보는 시선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대학 2개와 그 주변 상권이 전부였어요. 역사성이 있다고 하지만 학생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세종 특별자치시 자체를 특색도 없고 인프라(기반 시설) 부족한 도시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온 뒤 2021년 이후 원룸촌을 벗어나면서부터 시야가 넓어졌어요. 특별히 지역 연구를 하면서 보면 주민조차 모르던 사실, 문화유산 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지요. 다만 출신지가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요새는 또 넓은 의미에서 지역 내 인구 교환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충청권 내, 대전, 공주, 청주 등 근린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인근 지역 출신이나 타지 출신이나, 타지 중에서도 도시 출신이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역을 보는 반응이 달라요.

**임유진** 저는 전북 익산 출신인데요, 익산은 일단 평야 지대예요. 대전에 왔을 땐 산이 고루 있는 자연환경이 큰 차이로 느껴졌어요. 또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대전 사람들이 말이 느리고 차분하다는 인식이 있죠. 저도 대전에 있으면서 좀 느려지고 차분해지고 눈에 보이게 편안해졌는지 익산에 가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너 많이 차분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대전이 나에게 준 영향 아니었나 싶어요.





**박진석** 대전은 자연환경이 무척 잘 가꾸진 편에 속 하거든요. 5개 구를 둘러싼 산들도 그렇고 도심에 가로질러 흐르는 3대 하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분지 지형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까지 모두 갖춘 지형이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도심 근교에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산이 있고 또 산책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음에도 접근이 너무 쉽다 보니 간과하게 되지만 저는 이런 기반 시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3년 전 유성온천에서 포럼을 마치고 김해에서 오신 참석자 한 분을 대전역까지 태워드린 적이 있어요. 대전역까지 하상도로로 이동하는데 그 분께서 “와, 대전은 초록초록한 게 많이 보이네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겐 참 인상 깊었어요. 김해는 논 아니면 건물뿐이라 천변을 흐르는 물줄기나 강둑을 둘러싼 나무 같은 걸 볼 수 없는데 대전은 도심에서 이런 걸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의견을 듣자니

“  
아 이게 대전만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주** 저는 ‘대전’이라고 하면 과학도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세종은 도시풍경을 생각하면 신도심 기준으로 미래도시 느낌이 떠오릅니다.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정부세종청사부터 대부분이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이죠. 그리고 사람보다 건물이 많아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을 생각하면 사람이 많은 기차역과 전통시장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 두 도심은 가까운 듯 멀리 떨어진 듯하여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도시로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매력 있고 재미있는 도시 같아요.

“  
두 도심이 균형을 맞추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학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독자성과 고유성

###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대전·세종만의 정체성

**박진석** 저는 대전과 조치원 공통점으로 철도를 끄는데 철도가 연결되었다는 건 곧 자본이 흐른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철도가 놓이면서 산업 환경도 변하고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건 근대적 요소가 도입되었어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통업이 많았던 도시라고 하더라도요. 경제적인 여유가 확보되니 그게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정체성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대전도 조치원도 도시 규모에 비해 대학이 많아요. 조치원도 큰 대학을 둘씩이나 유치했지요. 또 다른 도시 정체성으로 교육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성주** 세종이 출생률도 높잖아요. 세종이 고향인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세종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게 어딜 접하느냐에 따라 세종 이미지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공주 장기면이 세종 장군면으로 편입되며 공주 인구가 유입되었고 그 밖에도 대전, 세종, 조치원, 충남권역 인구가 섞인 느낌이라 세종만의 정체성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성빈** 확실히 지역정체성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공신은 철도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차역이 생기면서 타고 내리는 사람, 또 환승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지금 조치원 재래시장에서 상업 종사하시는 대부분이 이주민이에요. 우리보다 30년 전에 이주해 오신 것뿐이죠. 실제로 어르신께 고향이 어디시냐고 여쭙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낳은 자녀 세대에 토박이가 있어요. 곧 있으면 남세종도 똑같아질 거예요.

“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주해 온  
인구 집단을 세종특별자치시 이주 1세대로 놓고 보면  
이분들이 낳은 자녀 세대가  
쉽게 말하면 이주 2세대, 3세대로  
세종이 고향인 세대가 탄생하는 거죠.

”



## 청년이 그리는 지역학 기억이 기록이 되기까지

**김지영**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얼 기록하느냐도 중요하겠지요. 임유진님은 계속 도시를 기록해 오셨지요?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셨나요?

**임유진** 최근에는 대전역 일대 정동과 원동을 기점으로 사람을 만나며 음악과 구술 기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마을사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목소리를 쉽게 내는 분들은 이장님 혹은 그와 비슷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에요. 자연스럽게 남성의 목소리로만 마을 기록이 채워진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여성분이라든가 식당을 오래 운영하신 여자 사장님이라든가 또 대전역 주변은 성매매 집결지라는 특성이 있어서 여성단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성 목소리로 마을을 기록했습니다. 지역학은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느껴지지만 조금 전 '누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와 닿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역학이 지니는 당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서울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지역은 소외되고 배제되기 쉬운데 지역별 고유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지역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석** 또 어떤 관심사를 지니고 기록하는지도 중요하지요. 소재동에 대해 기록을 시작하신 분은 관심사가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소재동 사료는 대부분 건축 분야 중심으로 남아 있는데 저는 관심사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관사가 이렇다, 구조가 이렇다, 건축물의 역사적 사실이 이렇다 뿐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철도 공무원이 살았다면 어떤 삶이 물어났는지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결국 거기 살아가는 사람이기지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도 지역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영**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두 분이 대전 지역을 예로 들어 얘길 해 주셨습니다. 세종화이라고 한다면 무얼 해야 할까요?



**주성빈** 택리지에 ‘생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역의 요소를) 별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물자가 어떤 방식으로 순환하고 경제를 이루는지 총체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개념인데요, 조치원 같은 경우 도시 기능이 연속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서 유희공간이 되었다가 재생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사(製絲) 공장이라고 누에고치 사용해서 비단실 뽑는 공장이 있어요. 조치원 연기군 중심사업이었다가 해방 이후 쇠퇴하지요. 그런데 실공장 수조를 그냥 두지 않고 단무지 초절임 수조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단무지 사업으로 바뀌어요. 단무지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조치원 한림제지라고 제지공장으로 바뀝니다. 물을 채울 수 있는 수조가 있으니깐요. 그러다가 땅값이 오르면서 하숙집이 카페로 바뀌기도 하고, 공장 부지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요. 자원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성빈** 그런 도시 기능들, 도시 자원에 대해 인지하면서 동시에 활용 방안도 논의되어야 주민이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자원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동조할 거예요. 문화 사업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논의해야 보존도 활용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지영** 기초 자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원이 미래에, 내일 어떻게 활용될지를 말이죠.

**박진석** 조치원은 있던 자원을 활용하지만 대전은 개발 중심입니다. 활용과 개발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촌 부지를 살펴보면 공지였던 곳도 과거 학교였던 자리도 있지만 과거 공장 부지를 재개발하면서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전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부지가 과거 방직공장 부지입니다.

대전은 도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보존과 활용보다는 개발이 진행되는데 개발의 방점은 아무래도 주거지죠. 그러면서 특색이 많이 사라진 부분은 안타까워요.

## 과거와 현재를 엮어 미래를 만들어 나가다

**김지영** 지금까지 지역학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덧붙여 지역학의 역사성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현재를 살피고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제시하는 게 지역학이 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리고 기록한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까지 지역학이 지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동계획과 더불어 우리 지역과 지역학에 대한 미래상을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임유진** 제가 사랑하는 대전 모습은 제 정체성에 비추어 보면, 비건이기도 하고 페미니스트기도 합니다. 대전 비건 커뮤니티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테면 비건 식당은 어디인지 비건 카페는 어디인지 서로 알려주는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요. 앞으로도 계속 대전 속 커뮤니티에서 삶의 지평을 넓혀 나가며 제가 느끼는 대전을 글이든 노래든 목소리로 낼 것 같습니다.

**박진석** 저는 올해 학술적으로 관광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해당 분야 대학원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행 전문가로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동네에 오시는 분이 단순히 한 번 방문하고 떠나가지 않고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하는 여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올바른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횡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 안에서 소비가 발생하고 그 소비가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성빈** 우리 회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 중 하나로 ‘로컬 고고학’이 있습니다. 원래 지역 고고학이란 개념은 널리 퍼져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해요. 상권이나 도시 요소처럼 보다 좁은 지역에 집중합니다. 지역에 유익하게끔 그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아쉬운 건 지역 문화자원을 조사하는 능력과 발굴해서 콘텐츠로 활용하는 능력을 둘 다 갖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지역 문화자원을 채굴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을 콘텐츠 요소로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게 지역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김성주** 저는 큰 이슈가 없으면 지금처럼 세종 원도심과 신도심에 고루 머무르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혁신창업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세종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태어난 지역이지만 사실 과거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였는데요. 일을 하며 관심을 가지다 보니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대학이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세종은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지역이 아직 정체성이 뚜렷하진 않지만 세종 지역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세종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이렇게 ‘지역’과 ‘사람’을 생각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 지역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남이 서로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기회에 자주 뵙기를 기대합니다. 계획하시는 일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삶과 장소, 문화와 미래를 연구하는 지역학

임서연 / 독립연구자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 지역민의 삶에 대한 관심,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지역학의 시작이다.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지역학의 역할임에도, 지역학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와 고민은 어느 지역이나 같다. 같은 고민을 나누는 전북학연구센터와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학의 의미와 함께 대전세종지역학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새겨본다.





## 지역만의 독특한 색깔을 다채롭게 담아내다

**장충희** 전북의 특징은 다채로움이랄까요? 전북은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채로운 곳이에요. 전북에는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군산이 있고 또 고대사를 대표하는 익산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전주가 있고,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고창도 있죠. 또 예술 면에서는 판소리, 그리고 경제사나 산업사까지 문화적으로도 적재적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부한 얘기지만 정말로 비빔밥 같은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 보니 전북은 외부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 문화의 수용과 전달도 유기적인 지역이죠. 다양함이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곳이 전북입니다.

**김지영** 전북이 많은 시, 군을 포함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역시 전북은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곳이에요. 전북학 연구 역시 다채롭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북에 14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전주학, 군산학, 익산학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학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장충희** 전북에는 14개 시군이 있고 물론 전주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각 거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문화불균형, 지역불균형이 조금 덜 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북학, 전주학, 군산학, 익산학이 지역학들 간에도 위계질서는 없어요. 저희 전북학연구센터는 도의 의견과 방향성을 대표해서 시군의 지역학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부터는 '시군 지역학의 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만큼, 이 지역학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전북학도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김지영** 전북학연구센터가 지역학 협력체계의 밑바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방금 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장총희** 저희는 지역학이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학 연구는 연구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대중들, 특히 도민들에게도 와 닿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학 대중화를 위한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21년까지 기반조성기, 24년까지 확산기, 28년까지는 성숙기로 설정해 두었어요. 올해 본격적인 확산기에 들어선 만큼 특히 대중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영** 작년에는 ‘전북학 대회’도 개최하셨네요. 올해 ‘전북학 대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장총희** 전북학 대회는 지금 2회 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특히 2회 차에는 ‘반계 유형원’ 탄생 400주년을 맞이해서 전북의 유학을 집성하는 행사를 했죠. 그런데 사실 전북학 대회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훌륭한 행사일지 몰라도 대중들에게 와 닿는 행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전북학 대회가 학술적 연구와 도민을 위한 행사를 병행해 전북의 축제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칭도 ‘전북학 주

간’으로 바꿨습니다. 지역학 연구를 위한 세미나도 열고 또 축제처럼 지역학과 지역을 홍보하는 부스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지영** 지역학 대중화에 대한 센터의 고민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 전북학연구센터가 지역학 강좌도 직접 제작하시는 건가요?

**장총희** 코로나 직전 2019년에는 우리 센터가 직접 커리큘럼도 제작하고 역사학, 문화 박사님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센터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유관 기관들 이랑 협력해서 강의 장소도 빌리고 강사분들도 모시고, 수요층도 확보했죠. 그리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자문받기도 했어요. 반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2020년도부터는 새롭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되면서 콘텐츠 시나리오와 기획은 저희가 맡고 촬영과 편집은 전문가에게 맡겨요. 작년에도 10편 정도 업로드 했어요. 전북학연구센터 유튜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 지역학 연구의 기반이 되다

**김지영** 대중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역학 연구센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네요.

**장충희** 우리 센터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매번 찾으려고 해요. 저희에게 가능한 예산, 인력, 인프라 안에서 어떻게 지역학 연구와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죠. 예를 들어 대중화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전북 아카이브 구축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카이빙 구축을 위해서는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지, 홈페이지는 어떻게 구현할지, 공간은 어떻게 구성할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해요. 이렇게 사실상 센터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저희는 도서관과 협업을 하거나 아카이빙 전공을 하신 분들께 자문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 수행해나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전북학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청년센터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어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북학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노인까지 확장해나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서울 경기 등 타지에서 온 분들이 전북의 역사나 문화에 매력을 느끼고 왔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전북학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지역학 연구 예산의 한계와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도 대중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니 저희도 많이 배워갑니다. 지역학 연구

인력양성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장충희**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성 연구자들에게 연구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신진연구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기성 연구자 지원은 ‘전북학 총서’ 발간작업을 통해 원고비 지원을 하고 있고, 신진연구자 양성은 저희가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를 통해 지원해요. 특히 저희 학술지는 지금 7집까지 나왔는데 이 학술지를 활용해서 새롭게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우수학위 논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요. 이 논문들을 저희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하면서 신진 연구자분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요.

**김지영** 그렇군요. 우리 센터에는 지역학 연구 자문 조직 ‘대전세종연구포럼’에 ‘대전세종학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대전세종학회의 발족과 학술지 창간을 위한 주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충희** 저희도 처음에는 포럼형태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학술지도 발간하게 되었어요. 지역학 연구 활성화에 좋은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세종지역학연구에도 기대되는 바가 정말 많네요.

**김지영** 오늘 지역학 연구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생각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지역학을 어떻게 대중화하고 어떻게 연구와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지 많이 배우고 고민해 볼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와 전북학연구센터가 지역의 대표 지역학 연구기관으로서 지역학 대중화와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리백숙 ‘전동가든’ 속삭이듯 추천해 주고 싶은 맛집

장석춘 / 문화활동가 · 시인

우리에게 친숙한 오리는 대표적인 보양식의 하나로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우리 몸의 독소를 없애주며, 피로 회복과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운주산로 개미고개 방향으로 가다보면 평범한 시골집 모습의 식당, 오리백숙 명가 ‘전동가든’이 있다. 주인이 직접 재배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한상차림 대접하는 노포 맛집, 전동가든을 소개한다.





## 오리 전문, 전동가든

왕복 2차선의 운주산로를 따라 개미고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평범한 시골집 모습의 식당이 눈에 들어온다. 마당 건너 편에는 철로가 있어 왕왕 열차가 지나간다. 식당 유리창의 ‘오리 전문’이라는 글씨에 이내 식당의 주메뉴가 뭘지 알게 해 준다. 이곳 전동가든은 2010년 가을에 현재의 주인 오복자 씨가 서울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다. 그 이전에 이 식당은 20여 년 가까이 전 주인이 식당을 운영해 오던 곳이었다고 한다. 오복자 씨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오리백숙을 주메뉴로 자리 잡게 했다.

오리요리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맛이다. 오리는 대표적인 보양식의 하나로,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우리 몸의 독소를 없애주며, 피로 회복과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주문할 수 있는 메뉴는 오리요리(백숙, 로스, 주물럭)와 한방토종닭백숙, 닭볶음탕, 삼계탕,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인데, 그중 1순위 추천 메뉴는 한방오리백숙이다. 국물과 함께 고기를 다 먹고 난 후 찰밥을 넣어 죽으로 마무리하는 게 정식 코스이다. 진하고 고소한 국물은 마지막 한 숟가락도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맛이다.



전동가든 주인 오복자 씨

### 전동가든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652

☎ 044-866-6670

## 음식을 대하는 한결 같은 마음

엄나무, 대추, 밤, 은행 등 재료는 기본이고 주인이 텃밭에서 직접 키운 호박, 고사리, 가지 등의 나물 반찬들이 있는 밥상은 마치 여기가 시골집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 그대로를 연상케 한다. 계절에 맞는 다양한 채소들이 맛을 더욱 북돋아 준다. 주인의 해맑은 미소, 마음 끌리는 시원시원한 인상에 손맛까지 곁들여지니, 음식이 맛날 수밖에 없다.

“이곳에 오기 전, 서울에서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밥상을 차려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인심 좋은 정겨운 사람들과 지내며 농촌의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지금이 참 편안합니다.”

주인 오복자 씨가 내어주는 음식 맛은 이러한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평온한 주변 환경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 대외적으로 특별히 식당을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소문을 타고 단골손님이 늘고 있는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의 식재료로써 조리 과정에 거짓이 없고, 우리 식구를 위한 밥상을 차린다는 그 마음이 한결같기에 지인들에게 속삭이듯 추천해 주고 싶은 맛집이다. 평범한 분위기이지만 특별한 맛이 있는 곳이다. 식당이 도로변에 있어 찾아가기 쉽고, 주차 공간도 여유가 있다. 음식은 사전에 예약 주문하는 것이 좋다.



## 유성시장을 지키는 노포, 향미원

최원석 / 인문학협동조합 그리고 이사

대전의 수많은 중국집 중에서도 오랜 추억을 간직한 곳이 있다. 향미원은 1975년 (구)유성시외버스정류소와 유성시장의 사이에 위치한 지금의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해 오랜 세월 대전 시민의 한 끼를 책임졌다. 특색있는 메뉴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은 향미원을 소개한다.

### 오랜 추억을 간직한 향미원

여행지에서는 오래된 중국집을 찾는 편이다. 읍 단위의 작은 중심지에도 중국집 한둘은 있기 마련이다. 지금은 쇠락했다고 해도 과거에 번영했던 도시라면 틀림없이 멋진 노포가 있다. 여행을 가면 중국집을 찾아가는 일은 가깝게 지내는 은사님께 배웠다. 군산이나 목포, 부산으로 답사를 다니며 제법 많은 중국집을 방문했지만, 정작 대전에는 무심했다. 학교 앞 대학가를 대전의 전부로 알았던 탓이었다.

향미원을 처음 알려준 사람은 썬 전세방을 찾아 유성시장으로 이사한 친구였다.

배달시킨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고 보니 백발의 어르신이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고 한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빌라까지 배달을 오신 사장님께서 다음부터는 가게에 와서 먹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한다. 향미원은 유성이 대덕군에 속했던 197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노포이다. 가게 외부의 간판은 색이 바랴지만 내부의 집기에서는 반질반질하게 윤이 난다. 지금은 자리를 옮긴 (구)유성시외버스정류소와 유성시장의 사이에 있어 장날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다 몇 년 전부터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부쩍 늘었다. 편안한 식사를 위해서는 주말과 장날을 피하는 편이 좋겠다.

### 향미원 만의 특색 있는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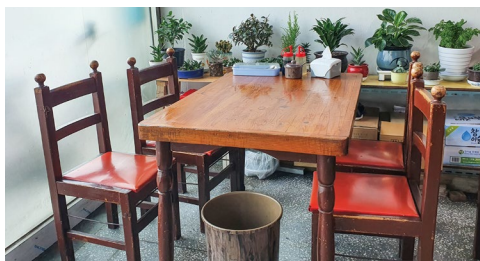
향미원의 대표메뉴는 '텐부라'다. 텐부라(텐뿌라)는 튀김을 뜻하는 일본어로, 중국집에서는 보통 고기튀김을 말한다. 향미원의 텐부라가 가지는 매력은 바삭함과 폭신했음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튀김옷에 있다. 바삭함을 좋은 튀김의 준거로 삼는 최근의 흐름과는 다른 맛이다. 새콤한 소스를 곁들이지 않는 대신 반죽에 소금간을 더하고 후추를 뿌려 내는 점이 탕수육과 다르다. 향미원이 개업했을 1970년대에는 흔한 메뉴였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보기 어려워진 메뉴이기도 하다. 식사부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우동과 함께 우동에 전분을 풀어낸 울면 역시 과거에 비해 입지가 줄어든 메뉴이다.

향미원의 음식이 가진 또 다른 특색은 가는 면이다. 소화에 유리한 가는 면은 오랜 단골들이 향미원의 음식을 사랑하는 중 하나다. 가는 면은 짜장 소스와의 흡착이나 국물과의 조화에 강점을 가진다. 군산 형제반점의 면이나 칼국수 면을 닮은 목포 태동반점의 '중간'과 같은 흐름이다. 음식 전반에 단맛이 억제되어 있고 기름도 적게 사용되어 깔끔한 맛을 낸다는 점도 특징이다. '단짠'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맛일 수 있겠지만 단골들에게는 이만한 맛이 없다. 노포를 체험하는 요즘 세대들에게도 향미원의 간직한 맛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 지역 문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다

향미원의 시간은 앞서 존재해 온 유성시장과 1979년에 건립된 유성시외버스정류장과 맞닿아있다. 유성시장은 공주, 논산, 금산, 옥천, 연기 등 인접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인근 최대 규모의 정기시장으로 발전했다. 유성시장 일대는 공식적인 시장의 형성 시기인 1916년 이전부터 유성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지만 유성의 정체성을 형성한 장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노포는 지역민의 일상과 크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의 한 줄기를 차지한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유성시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 재개발이후 유성시장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분양 상가와 유성장육을 혼합배치하는 동시에 주차장과 오일장 부지를 혼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의 존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의 청진옥·열차집처럼 재개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영업하는 노포도 있지만 을지면옥과 같이 재개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포도 있다. 향미원과 같이 주인장이 연로한 경우에 더욱 그러한데, 얼마 없는 유성의 노포가 오래도록 남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향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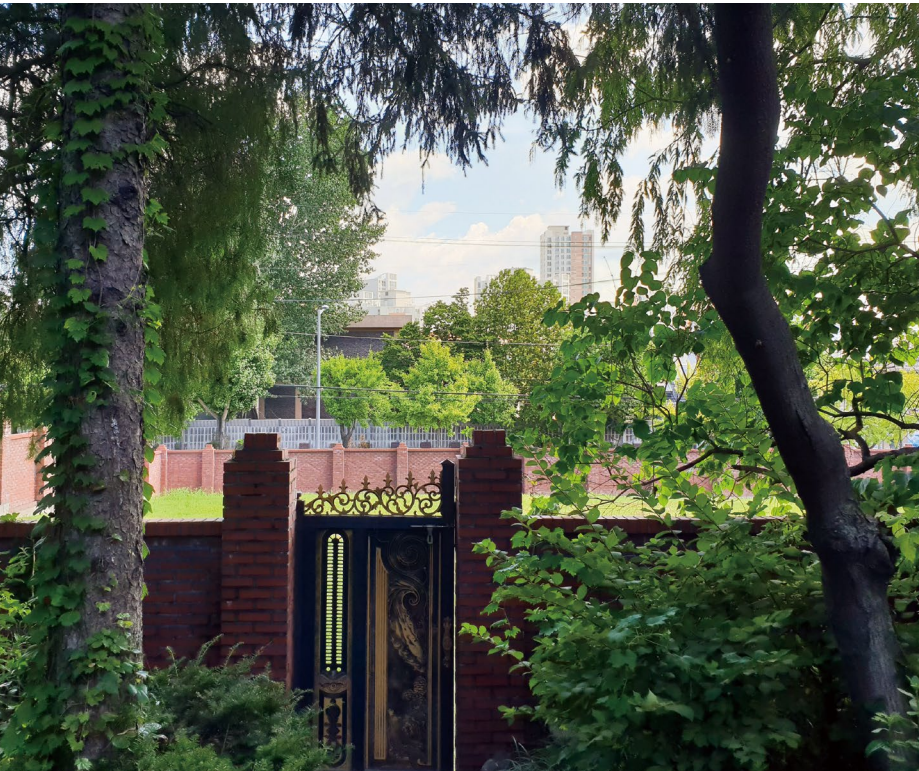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20번길 54  
042-822-3777





#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대전의 도시문화 사색하기 좋은 도심 속 작은 정원, 테미오래

김한솔 / 로컬42협동조합 이사장





우리가 어딘가를 방문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 이동 거리 및 접근성(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쇼핑, 음식, 자연 환경, 역사, 비용 등 생각보다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 젊은 세대일수록 평소 풍부한 정보력에 기반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소비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고, 친환경 키워드(지속가능성, 녹색, 환경, 건강, 지구)를 중요하게 여긴다. <테미오래>는 대전의 도심 속 문화공간이다. 도보를 포함한 대중교통 및 자가용 접근성도 높은 편이고, 동양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섞인 관사(官舍)와 관사별 정원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방문한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도 열리고, 무엇보다 골목의 정취가 남아있는 곳이라, 별다른 목적 없이 공간을 둘러보기 위해 혼자 방문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 테미오래는 어떤 곳인가?

현대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매력을 보유한 테미오래는 국내 유일의 관사촌(村)이다. 1932년 옛 충남도지사의 공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을 계기로 건립된 고위 관료들을 위한 주거지로 조성되었다. 테미오래는 대전의 대표 근대문화유산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대전광역시에서는 2018년 공모를 통해 '관사촌'에서 '테미오래'<sup>1)</sup>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업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2019년부터 문화공간으로 개방 운영 중이다.(민간위탁 1기 대전마을기업연합회, 2기 대전문화재단)

특히 개별 관사만 존재하지 않고, 10개의 관사가 한곳에 모여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테미오래만의 특별함이자 매력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충북문화관(충청북도지사 구 관사), 춘천시청 부속 건물(강원도지사 구 관사), 전북문화관(옛 전북도지사 관사),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옛 제주도지사 공관) 등으로 다른 지역 역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운영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또한 테미오래와 가까운 거리에 대전의 근대건축자원이 다채롭게 존재한다.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이 있는 '옛 충남도청'과 대전갤러리로 활용 중인 '옛 대전여중 강당' 외에도, '대전광역시 좋은 건축물 40선'에도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대전창작센터로 활용 중인 '대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 충청지원' 등. 근대역사문화와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테미오래를 방문하기 전후로 갈 만한 곳들이 다양해 볼거리가 풍부하다.

1) 테미오래는 '테미로 오래'와 '테미의 오랜 역사'를 중의적으로 의미

##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곳, 테미오래

테미오래는 2023년 설 연휴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추천한 관광지 5곳 중 1곳에 선정이 될 정도로 대전광역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소다. 대전역에서 내려서 도보 및 대중교통 접근성도 용이하며, 대전의 원도심(대흥동, 은행선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및 맛집과 연계하기도 좋다. 또한 플라타너스와 관사별 정원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작은 정원을 산책하거나 잠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사색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운영시간이 짧아 저녁에는 별도의 행사가 없는 경우 이용하기 어렵고, 원도심에 있으나 홍보 창구가 없어 누군가의 안내 없이 방문하기에는 낯설고 불편한 곳인 것 역시 사실이다. 더불어 대전 중구의 경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방문객이 소폭 증가(7%)했으나, 전반적인 체류시간(186분)과 숙박 일수(1.7일)가 짧은 편이고 소비패턴도 식음료(71.9%)가 압도적이다. 앞으로 테미오래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시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테미오래만의 가치와 특성을 살려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통해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테미오래는 충분히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 대전의 대표 문화공간이다. 대전이라는 도시가 태동함과 동시에 만들어진 공간이며, 근대화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풍부하다. 조경과 건축물 역시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며 한곳에 모여있는 10개의 관사는 다른 도시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담아내어 대전만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는 편안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

### 참고자료

- 보도자료 (1) 대전광역시, 설 연휴 방문 추천 관광지 5곳 선정(kbs\_2023.01.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3890>  
 (2) "설 연휴 동안 대전에서 가볼만한 곳은?"(권예진\_충청신문\_2023.01.19)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33596>
- 문헌 (1) 문화공간으로서 '테미오래'의 활성화 방안 연구(한상현, 오세설\_대전세종연구원)  
 (2) MZ세대 여행특성에 관한 연구(한국관광공사\_2022.07)
- 기타 (1) 2022년 기준 지역별 관광 현황(한국관광데이터랩)



테미오래 이용안내

운영 시간 | 하절기(3월~10월) 10:00~17:00 / 동절기(11월~2월) 10:00~16:00  
\* 입장마감 30분전

쉬는 날 |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당일  
\*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이용요금 | 무료

문의 및 안내 | 042-335-5701

홈페이지 | <http://temiorae.com>

T e m i o r a e





# 조치원역 광장에 부는 바람

최광 / 소설가



구 역사(1941년 준공, 1991년 철거)



현 역사(1949년 준공, 2018년 리모델링)

조치원역에는 여러 바람이 불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명절 귀성길을 책임지기도 했으며, 조치원의 충북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관제 시위의 장이기도 했고, 행정도시 이전을 위한 촛불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듯 조치원역의 역사는 불어 온 바람과 함께했다.

조치원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였다. 그러나 정식 역사(驛舍)는 1923년 6월 17일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필자는 명절 때마다 조치원역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을 마주했다. 한가위나 설에 조치원역 광장에 길게 늘어선 장사진(長蛇陣)을 보게 되었다. 70년대 도시화의 바람으로 서울로 올라갔던 주민들이 명절 때마다 조치원역에 몰려들었다. 그 주민들 상당수는 청주 지역 사람들이었다. 경부선 철도가 닿지 않는 청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조치원역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쯤으로 기억된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안내로 조치원역으로 몰려갔다. 광장에 도착하니 우리 말고도 어른과 학생들이 가득 모여있었다. 잠시 뒤에 연단에서 찌렁찌렁한 마이크 소리와 함께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충북 편입 결사반대'.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관제 데모였다. 당시 청주시는 경부선 철도가 닿지 않아서 조치원역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대전 생활권인 옥천군을 충남으로 보내고 조치원역이 있는 연기군을 충북으로 편입시키려는 행정개편안이 추진되었던 모양이다. 조치원에 사는 서민들이야 충남이든 충북이든 상관없지만, 공무원들은 달랐던 모양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조무래기들은 마이크 소리에 맞춰서 힘차게 '충북 편입 결사반대'를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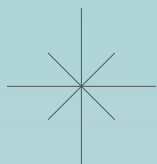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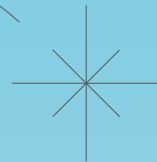
그 뒤로 정말 '결사반대' 덕인지 조치원은 충북에 편입되지 않았다.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추진되면서 청주시에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경부선 철도와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도 천안 대전 직선거리가 조

치원 서쪽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 청주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분기탱천했다. 우리는 철도역도 없는데 고속도로마저 비껴가느냐고 들고 일어났다. 고육영수 여사의 배경인지 경부고속도로는 청주 쪽으로 확 끌려갔다. 대중교통 수단도 철도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다. 이로써 청주는 더 이상 조치원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다.

청주 편입의 길도 막히고 경부고속도로도 청주 쪽으로 끌려가면서 조치원은 청주, 천안, 대전, 공주 한가운데 박힌 숲속의 공주가 되었다. 잠든 숲속의 공주를 깨운 기사는 노무현이었다. 연기군을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대통령 당선으로 조치원은 들쭉거렸다. 그러나 그 꿈도 잠시, 보수세력의 헌법소원으로 행정수도는 중단되었다. 동국대전을 들먹이는 헌법 불합치 판결은 궁색하기 그지없었다. 조치원역 광장은 다시 술렁거렸다.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서울로 향의 시위 행렬도 멈추지 않았다. 여론이 나빠지고 대통령이 바뀌어 행정수도가 다시 추진되더니 행정복합도시라는 기형아를 낳았다. 어느 나라나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지만, 행정수도를 반쪽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아쉬움은 또 있다. 비록 일제가 세운 거지만 조치원역사(驛舍)는 도시 규모에 맞게 이답하고 고풍스러웠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역사를 헐어내고 새로운 역사(驛舍-사진2)를 세웠다. 조치원의 새 조자(鳥字)를 형상화했다는 새로운 역사의 이미지는 낯설기만 하다.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옛 역사(驛舍)의 정취가 그림다.

DAEJEON SEJONG FORUM



# 연구원 이모저모

DSI NEWS

/연구원 뉴스



# 연 구 원 N E W S

## 충청지방통계청 업무협약(MOU) 체결



대전세종연구원은 2월 21일(화) 대전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충청지방통계청과 합동 정책연구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대전·세종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협력 및 교육, 통계데이터 연계·조합·분석에 필요한 보유 데이터 제공, 대전·세종지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지역특화통계 개발 등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방문



대전세종연구원은 2월 15일(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를 방문하여 2023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김영진 원장은 "나눔과 기부가 소외된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정신 확산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나아가는 데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재난재해 구호 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각종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시도연구원  
간담회 참석**



김영진원장은 2월 7일(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시도연구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모인 전국시도연구원장들은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에 공감하며 자치분권 분야 정책 연구의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계획을 논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플랫폼 구축, 지방대학교 집중 투자 등을 건의하였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연두방문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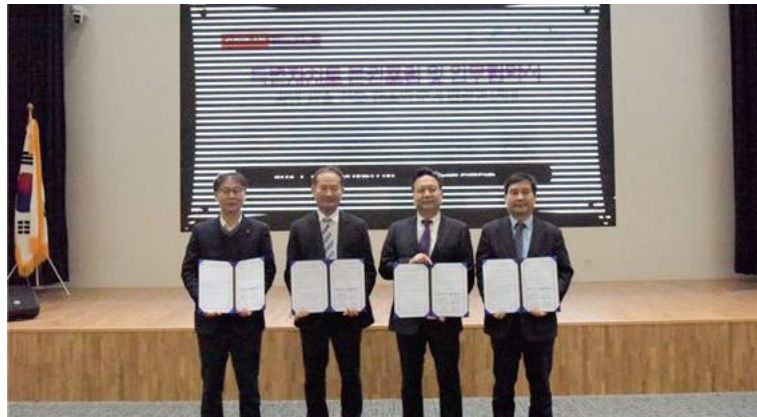
1월 31일(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연구원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진솔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책 수립을 위한 우수 연구진 확충 및 자료관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을 보고하였고 시장님은 앞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시정발전 연구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 2023 대전 반려동물 산업육성 전략기획 세미나



1월 12(목) 대전세종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의 동물복지 문화 도모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2023 대전 반려동물 산업육성 전략기획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대전의 반려동물 클러스터 구축 방향을 잡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세종연구원,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 MK Biotech, 봄 헬스케어, 아프리카동물병원, 인트브릿지, 디자인 203,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이 참여하였다.

## 특별자치도 분권포럼 및 업무협약식



1월 12일(목)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대전세종연구원, 강원연구원, 제주연구원, 전북연구원의 업무협약식과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이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사례를 통해 강원도 분권 추진 과정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협력 및 연대를 위한 자리가 되었다.

## 표창장 수여식



2022년 12월 30일(목) 대전청사 3층에서 지난 일년 동안 공로가 큰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형복 선임연구위원(문화관광체육부장관 표창), 안용준 세종연구실장(행정안전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윤설민 책임연구위원(대전광역시 표창)과 한상헌 책임연구위원, 이은하 계장, 이조은 전문연구원이 대전세종연구원 표창을 받았다.

## 대전세종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학술 연구교류 업무협약식



2022년 12월 22일(목) 연구원 대전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 학술·연구교류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지역 주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주거복지, 도시개발 및 도시재창조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 구성과 연구정보 교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토지주택연구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기로 하였다.



### 대전세종상생포럼 2022 하반기 정기포럼



2022년 12월 21일(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2층 ICT 커뮤니티홀에서 대전세종상생포럼 제3기 포럼위원, 관련부서 공무원, 상생협력연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대전·세종 상생협력 전략을 주제로 대전세종상생포럼 2022 하반기 정기포럼이 개최되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대전세종 도시·교통 연계협력 방안과 디지털 전환시대의 대전세종 노동시장 상생전략 등 대전시와 세종시 간 적실성 높은 상생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2022 세종학 포럼



2022년 12월 1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중연회장에서 세종학 포럼이 열렸다. 이해주(공주대 교수)의 "지역학, '세종학'의 기대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초 발제, 김시덕(작가, 문헌학자)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되는 중부권 메가시티의 미래를 생각한다"와 한상현(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장)의 "저마다 다른 세종학,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최창희(좌장/한림대), 김양식(청주대), 황혜란(대전세종연구원), 김인수(대구교대), 임동욱(미디어이터스), 윤철원(세종향토사연구소), 박정연(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라운드테이블 및 열린 대화로 세종학 연구의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 2022 대전학 연구 기획 세미나



2022년 12월 15일 연구원 2층 커뮤니티홀에서 지역학 연구의 핵심과제-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과 시스템 구현의 실재를 주제로 2022 대전학 연구 기획 세미나가 열렸다. 고순영(공주학연구원)의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동향과 과제”와 최광훈(RM소프트)의 “아카이브 시스템 구현의 실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해야 할 아카이브 역할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제10대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취임



김영진 제10대 대전세종연구원장이 2022년 12월 12일(월) 이장우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연구원 대전청사 1층 로비에서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김영진 원장은 대전광역시 공무원과 대학교수를 했던 경험을 살려 대전과 세종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었다.

## 대전세종충청지역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2022년 12월 7일(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층 강당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이 “지역경제 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주제로 대전세종충청지역 연구기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션1에서는 소상공인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세션2에서 지역상생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업무협약식 개최



대전세종연구원은 12월 7일 제주 히든클리프호텔에서 한국환경연구원이 주최한 '2022년 제2차 KETI 환경포럼(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 및 '지역 환경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는 본 행사는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연구원, 인천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이 참여했다.



### 편집위원

**위원장**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미래기획실장)

**위원** 박명신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서기자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최도영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송양호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84호

**발행일** 2023년 3월 3일

**발행인** 김영진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유성, 바00013

**주소**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제작**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Tel.042-633-7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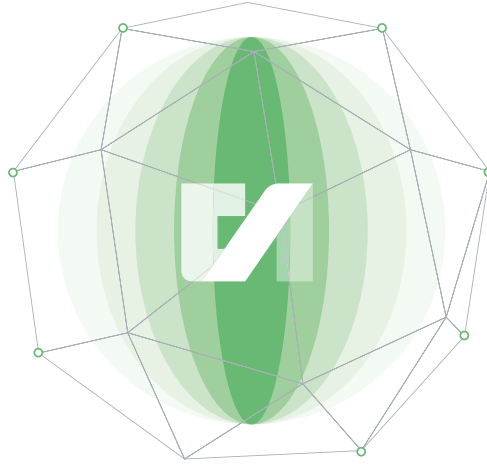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 연구과제 제안 안내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세종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http://www.dsi.re.kr)) 시민의소리(연구제안)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http://www.dsi.re.kr)